

20일 Market Index			
코스피	2559.74	코스닥	882.72
	(+0.53)		(-1.17)
금리	3.890	환율	1330.10
	(+0.003)		(+1.60)

저비용·고효율·친환경 기반 미래 위한 ‘지속가능성’ 모색

2023 물류&모빌리티 포럼

불확실·복잡성 대응방법 ‘디지털’
탄소중립 위한 친환경 연료 절실
물류 효율성 위한 풀필먼트 대세

물류·모빌리티 산업분야에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효율적이면서 비용이 덜 들고 친환경적이고 무엇보다 인간에게 안전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속가능성은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주최한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의 강연자들이 한목소리로 강조한 내용이다. <관련기사 L6·L7> 기조강연자로 나선 송상화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장은 그 답을 ‘디지털’에서 찾았다. 개인이나 회사나 고객들의 요구는 갈수록 복잡다기해지고 있다. 물류·모빌리티 기업들의 서비스는 까다로워지는 고객들에 맞춰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송 원장은 “기상천외한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로 이런 현상을 대신 전했다. 저비용·고효율 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송 원장은 “수요의 불확실성, 서비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린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에서 송상화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의 복잡성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디지털’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만든다는 것이다.

모빌리티의 경우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연료 사용이 최대 화두다.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환경 조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김서영 하이리움산업 대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많은 나라(지역)가 탄소를 줄이기위해 애쓰고 있다. 지난 50년간 잘사는 나라가 된 한국은 탄소배출을 많이 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됐다”면서 “수소, 특히 액화수소는 탄소중립에 최적화한 연료다. 운송,

산업, 발전 등에 수소에너지를 두루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수소에 대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열심히 한 적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최종소비자에게 상품을 전달하는ラスト마일(last mile)의 하나인 배달 산업에도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이슈다.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배달 시장이 엔데믹이 되면서 규모가 크게 축소, 대표적인 시장 참여자인 배달기사(라이더)의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규범 로지올 부대표는 “배달 분야에서 EV(전기 자동차)의 도입은 유지비를 줄여 라이더들이 수입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 “게다가 소음과 공기오염도 줄일 수 있어 사회적인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물류의 효율화를 위해 풀필먼트(Fulfillment)는 대세가 되고 있다.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는 “산업화 시대엔 제품을 만들어놓고 소비자들이 사갈 때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지금은 개별 소비자들에게 맞춰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커머스 특화서비스가 바로 풀필먼트”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표결 앞둔 국회, 긴장감 고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동시에 보고됐다. 두 안건 모두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어서, 국회 안팎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관련기사 6면> /뉴스1

화학에 헬스·바이오, 해운업까지 유통·식품가 혁신·체질개선 분주

롯데, 화학 매출 유통실적 넘어서
향후 바이오 등 신사업 15조 투자

해를 거듭할수록 소비 트렌드와 시장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식품회사들이 혁신과 체질개선에 분주하다. 기존 사업 영역을 벗어나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속가능 경영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유통기업으로 명실상부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롯데는 화학과 바이오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실제로도 지난 2년 동안 롯데그룹 내 화학분야 계열사의 관련 매출이 유통 부문의 실적을 넘어섰다는 점이 이를 방증해준다.

롯데그룹의 지난해 전체 매출액은 84조8000억원이며 이중 화학 부문은 전체의 33.8%인 28조6594억원으로 나타났다. 유통 부문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21조6606억원으로 전체의 25.5%에 그쳤다.

롯데그룹의 화학부문은 전지소재사업 및 수소암모니아 등 신사업 육성전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가 유통회사에만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모하는 모습이다”라며 “국내 e커머스 시장이 포화상태여서 신규 진입이나 사업확장이 쉽지 않은 만큼 화학, 에너지 분야로 빠른 전환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롯데는 향후 바이오·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신사업 분야에 15조2000억원,



(위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 김정수 삼양라운즈스퀘어 부회장, /각사

기존 사업 부문인 유통·식품·화학분야에 21조800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 소재 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장을 2050억원(1억 6000만 달러)에 인수했으며, ‘2030 글로벌 톱10 바이오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비전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3개 메가 플랜트, 총 36만L 항체 의약품 생산 규모를 국내에 갖추어 예정이다. 1개 플랜트 당 12만L 규모의 항체 의약품 생산이 가능하며, 임상 물질 생산을 위한 소규모 배양기 및 완제 의약품 시설도 추가한다. <4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

소문만 무성한 금융지주 ‘보험사 M&A’

롯데손보 매각가 3조… 너무 높아
인수유력 금융지주사 “소문일 뿐”

롯데손해보험, KDB생명 등 다수의 보험사가 인수합병(M&A) 매물로 나왔지만 주요 금융지주사는 관심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IB(투자은행)업계에서는 유력한 인수 후보군으로 금융지주사를 꼽고 있지만 정작 금융지주사들은 ‘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M&A시장에 나온 보험사는 KDB생명, ABL생명, 동양생명,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이 있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곳은 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이다.

순자산규모가 1조5000억원을 넘어 서고 있고, 인수가격이 최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손해보험의 최대주주인 JKL파트너스는 롯데손보의 매각을 위한 주관사 선정작업에 나섰다. JKL파트너스는 롯데손보의 지분 77%를 보유하고 있다.

롯데손보는 공시를 통해 “당사 최대주주에 확인한 결과 최대주주는 지분 매각을 위한 주관사 선정의 준비 작업을 시작한 상황이다”라며 “아직 구체적인 결정된 사항은 없으나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혹은 1개월 이내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주관사 선정 준비 작업을 시작하면서 IB업계에서는 금융지주들이인수전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자장사 비판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통한 실적 성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

험사 ‘인수’라는 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보험업계는 새 보험회계제도인 IFRS17 도입 효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해 은행권과 비슷한 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인수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금융지주는 ‘관심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신한금융의 경우 신한EZ손해보험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다급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지난 13일 해외 IR 행사에서 “현재는 보험사가격이 너무 높고 적당한 손보사 매물이 없다”며 “회계제도변경에 따라 이익이 상승했으나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



▲ 한 총리, 시진핑 중국 주석 만날까… 23일 항저우 개회식 참석 /사진 뉴스1
▲ 대통령실 “정부, 몇달 전부터 북러 군사거레 지켜보고 있었다”

▲ ‘정의연 횡령 혐의’ 의원직 상실형 윤미향 “상고하겠다”
▲ 보훈부, 동학농민운동 유공자법 야당 단독 처리에 “과도한 특혜”



▲ 민주, 국회 운영위서 ‘용산 대통령실 현장 국정감사’ 요구 /사진 뉴스1
▲ 야권 진보4당 “노란봉투법 9월국회 내 반드시 처리해야”

尹, 이틀간 17개국 만났다…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전 총력

뉴욕순방 2일차 8개국과 양자회담
코트디부아르·모나코·수리남 등
정상회담 마다 부산 홍보책자 건네

카자흐에 원전건설 등 협력 촉진
우즈벡과 핵심광물 공급망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 이틀차에 8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소화하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의 유치 배경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하는 등 외교 총력전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이틀간 17개국 정상을 만나는 강행군을 소화하고 있다.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코트디부아르·가나·모나코·수리남·레소토·벨리즈·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정상과 회담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 만나 '경쟁에서 연대로 전환'되는 부산 엑스포의 키워드를 설명하며 유치전에 총력을 다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부산 엑스포 홍보 책자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또한 각국 정상에게 "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개 이상의 대형 항구와 두 개의 공항, 그리고 반경 100km 이내에 세계 최고의 자동차 공장, 석유화학, 제철, 조선, 방위, 디지털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부산은 앞으로 그 어떠한 곳보다 많은 방문객을 유치해 참가국들이 원하는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강

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 부산 엑스포를 참가국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솔루션 플랫폼으로 명명했듯이, 윤 대통령은 "여러분 국가의 미래를 대한민국이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70여년 전 거의 모든 국도가 유린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기적적으로 전세를 역전시키며 자유를 지켜내고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냈다"면서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땀줄과도 같은 역할을 한 도시가 부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수물자와 유엔군 지원 병력이 부산을 통해 속속 들어왔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국가 성장이라는 희망을 견인한 이 수출입 항구로 인해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라는 기적을 만들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부산이 없었으면 오늘과 같은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도시, 전 세계에서 받은 도움을 이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와 연대로 보답하겠다는 대한민국 대외정책 기조를 부산이 상징하는 것"이라며 "부산 엑스포의 키워드는 그래서 '경쟁에서 연대로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이에 따라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연대하고 단결해야 한다는 우리 국가 대외정책의 방향을 부산을 통해 설명하고 역설할 예정"이라며 유엔 순

방 일정 마지막까지 윤 대통령이 열띤 유치전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한편, 이날 릴레이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주요국과 경제협력 강화와 핵심 광물 공급망 등 경제안보에서의 협력 확대에 주안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서 원전 건설, 핵심광물 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고, 한국 기업이 카자흐스탄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정부 측의 지원을 당부했다. 키شم-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에서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소재 등 자원이 풍부한 우즈베키스탄과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핵심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자"면서 현재 추진 중인 '희소금속 상용화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당부했다. 사브카트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한국 기업의 지속적 참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고 답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국제유가 상승에 생산자물가 0.9% 급증

한은, 8월 생산자물가지수
공산품 전월비 1%, 석탄·석유 11% ↑
농림축산품 7.3% 7년만에 최대폭

지난달 우리나라 생산자물가가 1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크게 오르고 집중호우 및 폭염으로 농산물 값이 치솟은 영향이다.

생산자물가는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9월 물가도 3% 수준으로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3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1.16으로 한달전과 비교해 0.9% 상승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 7월 상승세로 전환한 뒤 2개월 연속 올랐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생산자가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통계지표로, 소비

자물가지수와 약 한달간의 시차를 가진다.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또 다시 오르면서 소비자물가도 3%대를 유지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올해 8월 생산자물가지수 중 공산품은 전월 대비 1.1% 상승했다. 이 가운데 국제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석탄 및 석유제품은 11.3%, 화학제품은 1.4% 올랐다. 반면 제1차금속제품은 -0.3% 하락했다.

농림축산품도 전월 대비 7.3% 상승했다. 2018년 8월 8% 증가한 이후 최고 수치다. 농산물은 한달 전과 비교해 13.5%, 축산물은 1.5% 올랐다.

유성용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반면 수산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우려가 커졌음에도 변동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산품은 2013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오염수가 유출돼 8월

부터 12월까지 수산물 가격이 하락한 바 있다.

서비스물가는 운송서비스(0.8%)와 음식·숙박서비스(0.4%) 등이 상승해 0.3% 올랐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보다 1.4% 상승했다.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 물가가 각각 5.1%, 0.9%, 1.2%씩 올랐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8월 총산출물가지수는 7월보다 1.6% 상승했다.

공산품(2.1%), 농림수산물(7.1%), 서비스(0.3%) 등이 올랐다.

유 팀장은 9월 생산자물가지수 전망에 대해 "국제유가 오름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수에 다양한 품목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지수 수준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지방대 70% 사실상 '수시 미달' 수험생 '인 서울' 쏠림 더 심화

서울권 42개 대학 경쟁률 17.79대 1
지방권도 경북대 등 거점국립대 집중

수험생들의 '인 서울'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권 대학의 2024학년도 수시 평균 경쟁률은 17.79대 1로 지난 4년 사이 최고 경쟁률을 보인 반면, 지방권 대학 116곳은 5.49대 1에 그치며 같은 기간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방대 82곳은 경쟁률 6대 1에 미치지 못하며 '사실상 미달'인 상태다.

2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 소재 42개 대학의 수시 경쟁률은 17.79대 1로 최근 4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권 대학의 수시 경쟁률은 ▲2021학년도 14.67대 1 ▲2022학년도 16.01대 1 ▲2023학년도 16.85대 1로 매년 올랐다.

올해 경쟁률 상위 10개 대학은 ▲중앙대(33.62대 1) ▲성균관대(30.70대 1) ▲서강대(29.69대 1) ▲경희대(27.43대 1) ▲한양대(26.52대 1) ▲건국대(25.83대 1) ▲동국대(23.87대 1) ▲가천대(글로벌)(21.86대 1) ▲아주대(21.34대 1) ▲한국외대(20.20대 1) 등 모두 수도권 대학이다.

반면 지방 대학 수시 평균 경쟁률은 최근 4년간 ▲2021학년도(5.69대 1) ▲2022학년도(6.06대 1) ▲2023학년도(5.77대 1) ▲5.49대 1(2024학년도) 등으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특히 올해는 대학 102곳이 경쟁률 6대 1을 밑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방권 4년제 대학은 82곳으

로, 전체 지방대 116곳의 70%에 달했다. 지방대학 10곳 중 7곳은 사실상 정원보다 지원자가 적은 셈이다. 대학 수시모집은 수험생이 총 6번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쟁률이 6대 1보다 낮은 경우 실제 정원을 채우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권 경쟁률 상위권 대학도 경북대, 부산대 등 상위권 지방거점국립대나, 연세대 미래캠퍼스, 고려대 세종캠퍼스 등 상위권 대학 지방 캠퍼스로 집중화하는 모양새다. 지방 소재 대학 중 경쟁률이 높은 상위 10곳은 ▲경북대(13.97대 1) ▲부산대(10.49대 1) ▲연세대(미래)(9.61대 1) ▲상명대(천안)(8.84대 1) ▲단국대(천안)(8.83대 1) ▲고려대(세종)(8.71대 1) ▲충남대(8.60대 1) ▲충북대(8.59대 1) ▲건국대(글로벌)(8.46대 1) ▲한국기술교육대(7.93대 1) 등이다.

수도권 대학에서는 17곳이, 서울권에서는 7곳의 대학이 6대 1이 경쟁률을 넘지 못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권 소재 대학으로 더 집중화되는 양상"이라며 "2024학년도 기준 수시 선발비율이 지방권 88.1%, 수도권 69.8%, 서울권 60.1%로 매우 불균형적이고, 지방권 소재 대학에서 수시 비중을 아무리 확대해도 개선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대표는 "(지방권 대학은) 수시 미충원, 이월로 인한 정시 모집규모 확대, 정시 모집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현진 기자 lhj@

“인수전 소문 IB서 흘러… 새 회계제도 거품 걷어내야”

» 1면 '소문만 무성한 금융지주'서 계속

5대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보험사와 증권사가 없는 우리금융도 보험사 인수에 관심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직접 보험사 인수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다.

하나금융 역시 KDB생명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최근 인수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 속 KDB생명 매각가의

10배가 넘는 롯데손보 인수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금융지주가 인수전에 참여할 것이라 소문은 IB시장에서 흘러보내는 것”이라며 “정작 금융지주들은 현재까지 인수할 마음이 없으며 새로운 회계기준 거품이 없어지는 것을 봐야지 보험사 실적을 정확히 알 수 있어 현재로는 인수 의향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서울 중구 롯데손해보험 본사. /롯데손해보험

무책임 테슬라 ‘승승장구’… 완성車업계, 효율성 개선 ‘시동’

완성차 업계가 전동화 시대에도 노조 리스크와 비용 감축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무시할 수 없었던 탓이다.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춰 위기를 피하고 있는 테슬라에도 새삼 이목이 쏠린다.

20일 외신 등에 따르면 전미 자동차 노조(UAW) 1만2000여명 조합원들은 이달 초부터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등 3대 자동차 업체 공장에서 파업을 진행 중이다.

◆ 완성차는 위기, 테슬라는 기회

UAW는 높은 임금 인상과 근무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가 적극적으로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거부한 상태다.

파업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UAW를 지지하는 상황, UAW도 22일(현지시간)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파업을 확대하겠다는 성명도 발표했다. 현지 여론도 파업을 찬성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현지에서는 이번 파업이 자동차 산업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등 정치인들도 양측이 입장을 좁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美 노조 파업에 테슬라 주가 상승 효율성 중심 경영기조 긍정적 작용

파업이 끝난다고 해도 미국 자동차 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적지 않은 임금 인상으로 원가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UAW 측에서는 차량 가격에서 임금 비중이 매우 적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파업 후에 미국 완성차 가격이 적지 않게 오를 것이라는 분석은 이어지고 있다.

테슬라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여기에서 나온다. UAW 소속이 아니라 파업을 피한 테슬라. 당장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데다가 ‘노조 리스크’와는 관계가 없는 안정적인 경영을 보여줬다는 이유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미 일론 머스크가 승리했다’는 제목으로 UAW 파업을 보도하기도 했다.

테슬라 주가도 UAW 이후 상승세다. 지난 8일 248달러였지만, 다음 거래일인 11일에는 273.58달러로 상승해 19일 기준 266.5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16일에는 SNS에 15년 만에 500만번째 생산 소식을 알리며 격화하던 UAW 파업에도 변하지 않는 생산성을 과시했다.

아울러 테슬라 인공지능(AI) 컴퓨터인 도조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큰 영향을 끼쳤다. 지난달 카메라와 인공지능만으로 구현한 완전자율주행(FSD) 영상을 공개하면서다. 테슬라에 중립적인 입장이었던 모건스탠리도 도조에 대해 호평을 내기도 했다.

◆ 목숨보다 효율 ‘혁신’ 효과

테슬라가 완성차 업계와 비교해 높은 생산성과 가격 경쟁력을 보유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춘 사업 구조로 평가된다.

테슬라는 처음 생산을 시작할 때부터 공정에 투입하는 인력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생산 지연이나 제품 하자



전미자동차노조(UAW) 조합원들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미 디트로이트 시내를 행진하는 모습. /AP뉴시스

발생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정도다.

윤리도 무시했다. 자율주행 기능이 불안전했을 때에도 ‘완전자율주행’이라고 소개하고 무분별하게 데이터를 수집, 이를 이용해 AI를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완성차 업계는 이런 이유로 선불리 테슬라를 따라가지 못해왔다. 대대적인 전동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사업 개편과 구조조정이 불가피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기는 어려웠던 것.

한 업계 관계자는 “내연기관을 만들다가 전기차를 만들면 인력을 절반 가까이 줄이는 것뿐 아니라, 부품을 공급하던 협력사들까지 도산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전동화를 빠르게 추진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설명했다.

자율주행 기능도 마찬가지다. 완성차 업계는 판매 차량이 아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테스트카로 자율주행 데이터를 확보해왔다. 카메라만 쓰면 인간과 같이 만에 하나라도 사고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레이더와 라이다 등 다양한 센서를 함께 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테슬라와 같이 소비자 목숨을 담보할 수는 없었다는 것.

테슬라와 같이 상용차에 자율주행 기능을 우회적으로 넣을 수도 없었다. 당초 기존 완성차사들은 OTA도 불법이었고,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중인 최근에도 자율주행과 관련한 기능은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전언이다.

완성차업계, 규제·책임문제 등 발목 “살아남기 위해서 효율성 더 따져야”

실제로 온라인에는 테슬라 차주들이 국내 도로에서 손을 놓고 오토파일럿을 작동하는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기능을 여는 방법도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 반면 해외 완성차 업계가 양산하고 있는 3단계 자율주행 차량은 국내에 출시되지도 못했다.

국내법상 특정 구역에서 승인받은 차량이 아니면 일정 시간 손을 떼고 달리면 불법이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지원하는 기능이 아니라 단속할 방법도 없다.

◆ 완성차도 이제는 Be 테슬라로

테슬라가 ‘승승장구’하면서 완성차 업계도 결국은 테슬라를 따라가는 모습이 감지된다. 생존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지난해 테슬라가 가격을 크게 인하한 사건이 분수령이 됐다. 당초 완성차 업

계는 테슬라 고가 정책에 맞춰 전기차 수익률을 지켜고 천천히 전동화를 추진했지만, 테슬라가 가격 인하에 나서면서 자칫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공포가 형성된 영향이다.

GM은 2019년 전세계적인 대규모 구

조조정을 단행한지 4년여만인 올 초에도 전세계 사무직 5000명을 감축했다. 포드와 폭스바겐 등 완성차 업체들도 유럽에서 각각 수천명을 정리해고하며 ‘혁신’을 단행했다.

국내에서도 인력 감축은 현재 진행형이다. 완성차뿐 아니라 부품업체까지도 일부에서는 꾸준히 희망퇴직을 진행 중, 그렇지 않더라도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모를 줄여가고 있다. 하반기에 현대자동차·기아 정직원 숫자가 상반기보다 2500명이나 줄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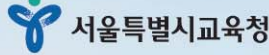
한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가 대폭 가격을 할인하면서 인력 감축에 부정적이던 여론도 크게 줄었다”며 “국내 자동차 공장들도 정년 퇴임을 앞둔 인력 비율이 매우 높다. 그러면서도 신규 채용을 막으면서 5년에서 10년 이후에는 자연스러운 인력 감축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 혁신도 준비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는 그동안 기존 공장을 전동화에 맞게 리뉴얼하거나, 컨베이어 벨트를 없애고 운송 로봇을 확대해 혼류 생산을 가능케하는 방식을 추진하면서 효율을 높여왔다.

다만 지원금 등을 감안하면 새로 짓는 것과 비교해 비용이 적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전기차 공장을 새로 만들고 내연기관 공장을 추후 매각하는 방식도 검토 중으로 전해진다. 미국 GM과 포드가 일찌감치 전세계 각지에 있던 공장을 매각한 것도 전동화를 대비한 전략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테슬라처럼 사회적 책임을 포기하고 효율성을 더 중시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테슬라에는 관대하지만 여전히 완성차에는 가혹한 여론은 여전히 부담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서울특별시교육청

제2교시 **스쿨존 운전자 교통안전 TEST** 100점

1.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운전자가 기본으로 지켜야 할 [가·나·다]로 시작하는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은 무엇인가요?
※ 아래의 내용을 채우세요.

가 기 전 살피고,
나 부터 멈추고,
다 함께 천천히

스쿨존에선 교통안전 100점
[운전자]가 되어 주세요!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가나다 캠페인
어린이, 운전자 모두 함께 실천해요!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Q 에 참여해 주세요



탈원전 복원·원전생태계 정상화·수출총력, 핵심정책 ‘의지’

방문규 산업장관 취임 첫 현장행보
서울원전·부산신항 잇따라 방문
“안전 최우선 원칙 철저히 지켜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취임 첫날 현장행보로 서울원전과 부산신항을 잇따라 방문했다. 탈원전 복원과 원전산업 생태계 정상화, 11개월째 내리막인 수출 반등을 산업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방 장관은 이날 취임식을 생각한 채 오후 3시께 울산 울주군 소재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새울 원자력본부를 방문했다.

새울 원전본부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수출의 모델 원전인 APR 1400이 국내 최초로 운영중인 새울1·2 호기가 있고, 특히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가 현재는 막바지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적 장소다.

방 장관은 현장에서 직원들을 만나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오후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울산시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원전 운영과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안전 최우선 원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방 장관은 이후 원전 기자재 업체가 밀집한 창원으로 이동, 원전 주기기와 보조기기 납품, 수출 업체 대표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방 장관은 “무탄소기 지원전인 원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지난 정부 탈원전으로 우리 원전업

계는 매출이 30% 가까이 줄고 인력의 17%가 이탈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원전 생태계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약속했다.

방 장관은 특히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집행하기 위해 조기에 선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보증지원제도와 특별 금융자금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

다. 그는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며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후 부산 신항을 방문했다. 부산항은 전세계 150개국 500개항과 연결돼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63%를 처리하는 국내 최대 수출입항이다.

방 장관은 “무역수지가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기 위축, 마·중 무역마찰, 공급망 재편 등 대외여건은 엄중하지만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수출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현장에 참석한 KOTRA, 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장관이 직접 수출현장을 방문, 금융, 마케팅, 인증 등 애로를 직접 해결해 수출 반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말까지 최대

182조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기계부품·의료기기·뷰티 등 글로벌 전시회, 인도·중남미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사절단 파견 등 단기 수출 성과와 직결되는 해외 마케팅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이날 현장행보에 앞서 언론에 배포한 취임사를 통해 ‘수출 반등’과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과 함께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등 3가지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방 장관은 “민간의 창의성을 살리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우리산업의 압도적 제조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초격차 기술개발, 국내외 우수인력 확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공급, 세제·금융 등 필요한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전적인 대형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최첨단 혁신기술을 선도해 나가고자 한다”며 “한·미·일 3국 간 연대를 주축으로 주요국과의 산업·통상·기술 협력을 강화해 우리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김동철호, 전기요금 정상화·재무구조 개선 ‘과제’… 환골탈태 경영예고

김동철 한국전력 신임 사장 취임
뼈 깎는 경영혁신·내부개혁 필요
‘생존을 위한 변화’ 수 없이 강조

“전무후무한 위기 앞에서 모든 원인을 외부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한전 스스로의 냉정한 반성은 없이 위기 모면에만 급급하면, 위기는 계속되고 한전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전력이 4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수장의 자리를 채웠다. 20일 김동철 한국전력 신임 사장은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 자리에서 ‘제 2의 창사’를 각오를 내비치며 한전 구성원에게 기존의 구조와 틀을 과감히 벗어던질 것을 주문했다.

김 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4분기(10~



20일 오전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김동철 신임 사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한국전력

12월) 전기요금 결정과 부채와 누적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을 정상화 과제 해결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김 사장은 ‘생존을 위한 변화’를 수도 없이 강조하며 변화의 핵심으로 ‘수익 구조 다변화’를 꼽았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 거둔 41조2165억의 매출 중 93.7%가 전기판매수익이다. 김 사장은 매출액의 90% 이상을 전력판매 수익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총수익의 30% 이상을 국내 전력판매 이외의 분야에서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대규모 적자 해소를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면서 이에 앞서 한전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사장은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이 다시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기요

금 정상화는 더욱더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우리의 뼈를 깎는 경영혁신과 내부개혁 없이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국제유가 등이 전력생산 비용에 반영 되는 데 일정 시간이 걸리니 만큼 물가안정 차원에서 4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바라보는 기대감과는 먼 주장이다.

현재 한전 부채는 상반기 연결 기준 201조4000억원으로 국내 상장사 중 최대를 기록한 상태다. 특히 지난해 192조8000억 원으로 1년 만에 32%가 늘어나 재무구조는 더욱 위태로워졌다.

김 사장도 지난 2021년 이후 47조원에 달하는 누적적자, 600%에 육박하는

부채 비율, 201조원의 총부채 등을 거론하며 한전의 심각한 재무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사채 발행도 한계에 왔다”며 “부채가 늘어날수록 신용도 추가 하락과 조달금리 상승으로 한전의 부실 진행 속도는 견잡을 수 없이 빨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원가를 밀도는 전기요금은 에너지 과소비를 심화시키고 에너지 수입 비용 증가로 이어져 국가 무역 적자를 더욱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봤다.

한전은 당초 전량보다 환율이 5%, 에너지 가격이 10% 오를 경우 내년에만 6조원 이상의 영업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경제계 “韓기업 규제, G7보다 높아”

대기업 집단 제도 등 규제 개선 시급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기업지배구조와 대기업집단 제도 등 전반적인 기업 규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요 7개국(G7) 국가와 비교해 국내 기업의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5단체는 20일 오후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개최사를 통해 “과거 외환위기 당시 코

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기업규제들을 도입했으나, 이제는 이런 제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이날 ▲신주인수선택권 도입 ▲기업집단 규제 재정비 ▲법인세 단순화 요구에 한 목소리를 냈다. 현 정부 출범 당시 속도감 있는 규제 개선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들이 OECD, G7 등 경쟁국 대비 차별적인 규제 환경에 놓여있다는 의견이다.

◆G7보다 복잡한 과세체계와 높은 세율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기업집단 규제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표소송 제도나 지주회사 규제가 가장 엄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일

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집단 전체를 ‘사전 행위규제 방식’으로 규율하는 사례는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 방식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설립 허용(1998년) 이후, 지주회사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채비율 규제, 증손회사 규제, 금산분리, 자회사 지분규제 등 각종 사전규제를 시행 중이다. G5 국가들은 주로 회사법을 통해 사후규제만 시행하고 있다.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은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세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7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한국 법인세는 복잡한 과세 체계에 세율도 높아 법인세수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지적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푸드테크 활용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

▶▶ 1면 ‘화학에 헬스·바비오’서 계속

과학기술 융합해 식품영역 개척

그렇다고 기존 주력사업인 유통 분야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도 아니다. 당장 오는 22일 베트남 하노이에 프리미엄 소형물인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그랜드 오픈한다. 식품 분야의 경우 기존 사업 밸류체인 고도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 글로벌 사업 확장 및 푸드테크를 활용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롯데그룹은 기존 사업뿐 아니라 신규 사업에서도 성과를 거두는 이른바 ‘양손잡이(ambidextrous) 조직’으로 거듭 난다는 복안이다.

삼양식품그룹은 그룹과 지주사 CI를 ‘삼양다운드스퀘어’로 바꾸고 음식문화

와 과학기술을 서로 융합해 새로운 식품영역을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근 진행한 비전선포식에서 삼양다운드스퀘어는 그룹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 글로벌 체제를 가속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삼양스퀘어랩을 통해 생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 맞춤형 식품을 개발하고, 삼양다운드힐(전 삼양목장)에서는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해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식품을 개발한다.

기존 베스트셀러 ‘불닭볶음면’ 포트폴리오도 강화하고 해외 수출 확대에도 사활을 건다. 지난해 삼양식품의 영업이익률은 식품업계 평균을 웃도는 10%로, 2018년부터 5년 연속 10%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지구를 위한 그린플루언서 **SK incheon petrochem**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AVE



[이 작품은 다음 키워드를 기반으로 SK이노베이션과 시가 함께 그린픽처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순환 #선한 에너지 #선제적 혁신 #효율적 에너지 솔루션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

작품명 **세상을 지키는 선한 에너지**

SK인천석유화학은
에너지 공급과 자원의 재순환을 통해
세상을 선한 에너지*로 채웁니다

*선한 에너지는 탄소를 줄여 나가는 에너지 전환을 통해
모두에게 이로운 혜택을 전하고자 하는 SK인천석유화학의 지향점입니다



SK인천석유화학의 **그린픽처**

“약자복지·인구위기 등 민생 8대 과제로 정책 경쟁하자”

윤재옥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세계 각국 의회, 국가혁신에 박차
우리 국회, 소모적 정쟁에 시간 허비”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제안과
전세사기·기후변화 대응 등 언급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보자”며 각 정당이 민생 8대 과제로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 8대 과제를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으로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세계 각국 의회들은 국가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핵심 기술 발전을 이끄는 동시에 경쟁국을 견제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강화하는 ‘미국혁신경쟁법’을 제정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떠한가. 반 발자국이라도 경쟁국들에 앞서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인 생계급여를 문제인 정부 5년 통틀어 20만원 인상했다고 지적한 반면, ‘약자복지’를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해만 21만3000원을 올릴 계획이라고 비교했다.

윤 원내대표는 “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 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

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인가”라며 “선거를 앞두고 돈 풀고 싶은 ‘정치복지’의 유혹, 지금 정부와 여당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개선되지 않는 인구 절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인구 정책을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문제도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자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한 전세사기 피해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강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임대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 질 좋은 서민 주거 제공 등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기후변화 대응에도 “우리가 탄소중

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소형 모듈원전)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방해가 되는 ‘3대 사회 병리 현상’으로 ‘묻지마 범죄’, ‘마약’, ‘자살’을 꼽으면서 강력범죄의 처벌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보호와 치료 차원의 접근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지방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면제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들에게 실효적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인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여야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민주당 “尹정권 폭정·검찰독재로부터 국민 지킬 것”

尹 폭정·독재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 반드시 가결
고 채상병 외압의혹 등 15가지 항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석열 정권이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검찰독재를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며 의원 전원의 결의를 모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폭정·검찰독재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규탄하면서 이에 대한 쇄신을 요구하는 15가지 항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 발표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폭정 저지, 내각 총사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폭정·검찰독재 저지 총력투쟁대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시스

통령과 국무위원이 야당을 향해서 듣기에도, 입에 올릴 수도 없는 적대감을 공공연히 표출하고, 마침내 국정 쇄신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야당 대표에게 체포동의안이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응수를 하고 있다”면서 “국회 회기를 기다려서 검찰이 노골적으로 정치 행위를 감행했다. 평범한 국민도 참는 데 한계가

있다. 이 정권은 참으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한참 넘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에 이어 박범계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고민정 최고위원, 김현정 경기 평택을 지역위원장이 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비판했다.

결의문에는 윤석열 정부 내각 총사퇴

및 인적 쇄신, 고(故)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안 처리, 검사 탄핵안 추진, 사상 최대 세수결손에 대한 지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홍범도 장군 홍상철 거 규탄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담겼다.

또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고속도로 게이트, 언론 파괴를 ‘권력 사유화’, 이태원-오송 참사를 ‘무능한 행정’의 대표 사례로 소개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같은날 진행중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즉각 사퇴하라며 야당의 임명 동의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결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3명의 장관 후보자에게도 반대방침을 분명히 했다.

결의문은 “식민사관 쿠데타 찬양 인사 신원식 후보자, 실패한 재활용 인사 유인촌 후보자, 잠수 주식매각, 대통령 부인 20년 인연 김해 후보자, 이들 3인은 인사청문대상이 아닌 수사대상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21일째 단식 투쟁 중인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윤석열정권의 독재와 폭정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킬 것”이라며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전국의 당원, 지역위원회, 시도당, 중앙당까지 비상한 각오와 행동으로 국민항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野 “이균용 배우자, 형사처벌 대상” vs 與 “기록·현장 확인했나”

대법원장 후보자 2일차 인사청문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2일차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참고인으로 출석한 황인규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이 후보자의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이 형사처벌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이 여당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틀째를 맞은 인사청문회는 이균용 후보자의 처남으로 운전학원을 운영 중인 김형석 옥산 대표이사, 함께 판사로 근무했던 이경준 전 서울회생법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조세법 전문가인 황 교수는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이 후보자의 장인이 부산 만덕도 소재

산을 구입해 물려주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조세불복심판을 청구해 현금 증여를 토지 증여로 세금을 바꾼 납부액을 대폭 줄인 것을 들여다봤다.

이 과정에서 과세 당국은 현금 증여라고 판단해 1억3399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조세불복심판청구를 통해 토지 증여로 명목이 바뀌어 기존 증여세보다 90% 이상 깎은 1133만원만 납부했다.

이 의원은 “굉장히 이상하고 탈법, 취득세나 증여세 등을 탈루하기 위해서 법을 악용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황인규 교수는 이에 대해 같은 시기 유사 판례 2건은 모두 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하면서 “이상한

점은 당시 토지를 계약하고, 매입 대금 전액 납부한 후 등기를 안 했던 게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증여로 취득했는데 매매로 등기해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가 이 후보자 배우자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전주해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을 직접 다뤄보신 건 아니지 않나”라며 “등기부등본을 봤다가거나 현장에 가봤던지 했나”라고 물었다.

황 교수는 현장에 직접 가본 것은 아니지만 언론 기사 등을 통해서 판단한 견해를 말한 것이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여야, 본회의서 한덕수 해임안 먼저 표결

이재명 당 대표 체포동의안 진행

여야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먼저 표결에 붙이고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정 여부는 합의하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3자 회동에 나서 21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상정 여부’에 대해 “저하고 윤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장 견해가 각각 상이해서 상정에 대한 합의는 이뤄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송3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그는 ‘합의되지 않았으면 상정이 안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했다. 향후 추가 회동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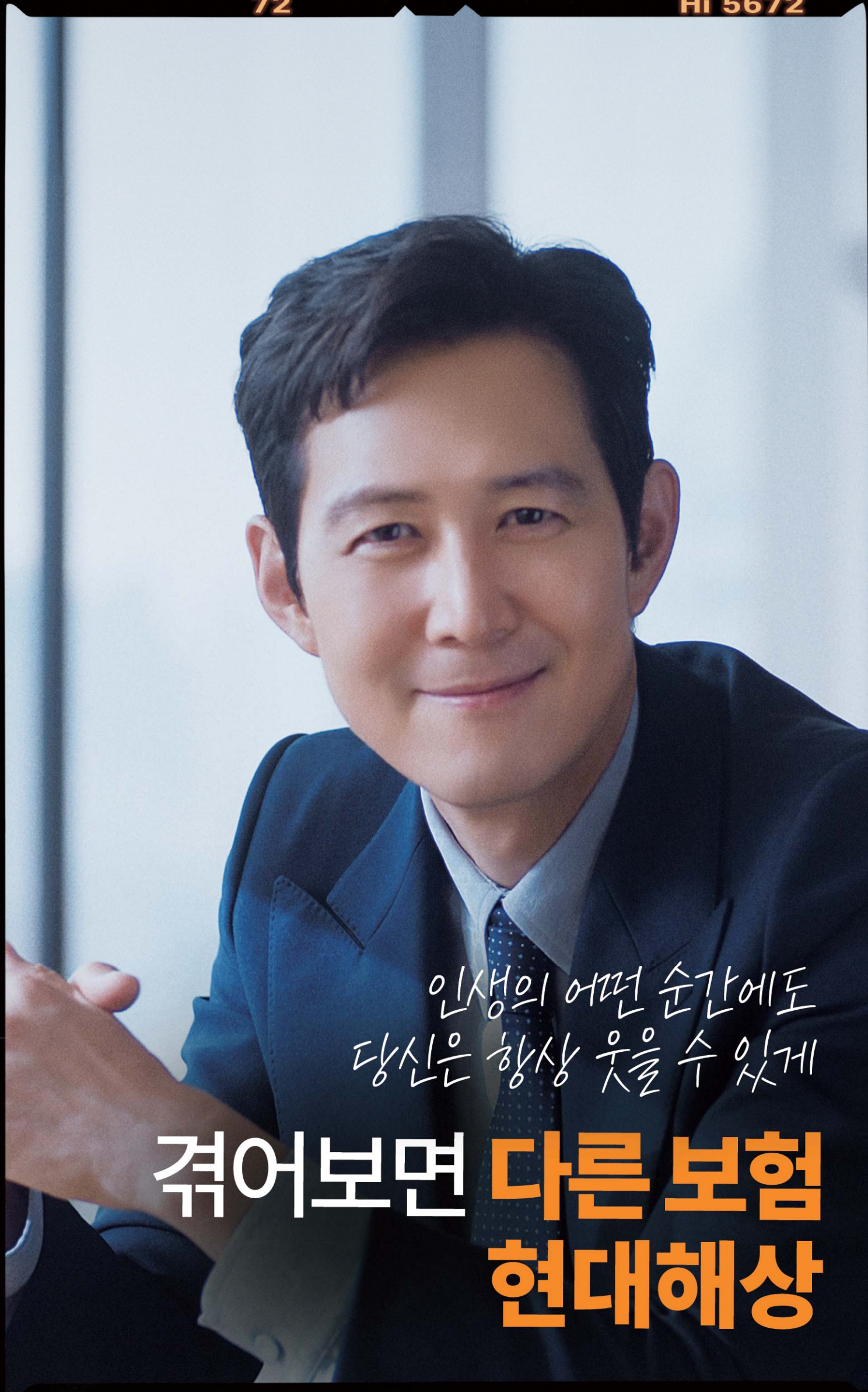
박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해임건의안 표결 순서’와 관련해 “해임건의안, 체포동의안 이렇게”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둘 다 상정 안 하는 건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했다.

그는 ‘의장도 상정 안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확실한 답은 안 났다”고 했다. ‘확정되면 필리버스터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네 당연히”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72

Hi 5672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당신은 항상 웃을 수 있게

겪어보면 **다른 보험**
현대해상

56

Hi 5656



OOA

57

Hi 5657



OOA

58

Hi 5658



45

Hi 4645



43

Hi 4643



44

Hi 4644



마음이 합니다

H 현대해상

운전면허 소지자 43% ‘女’… 손보사, 여성 특화상품 경쟁

여성 운전자 비율 꾸준히 상승
건강관리 등 고려 성장성 높아
손보사 앞다퉈 특화 보험 선보



손해보험업계가 여성 운전자를 위한 보험 상품 출시에 나서고 있다. /유투이미지

보험업계가 ‘여심(心) 잡기’에 나섰다. 여성 특화 보험 시장이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가 여성 운전자를 위한 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최근 여성 운전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여성 특화 운전자·자동차 보험을 선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운전면허 소지자는 약 1466만명이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약 3413만명) 가운데 43%가 여성이다.

아울러 여성 운전자 비율은 1983년(5.8%) 이후 30여년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여성 운전자 비율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워졌다.

손보사들은 여성 운전자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앞다퉈 여성 특화 운전자·자동차 보험을 선보였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4일 ‘한화 여성 플랜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여성을 가장 잘 아는, 여성 전문 보험사로 브랜드화 중이다”라며 “나채범 대표이사 취임 이후 여성을 강조해왔고 지난 6월 ‘라이프플러스 펠테크(Femtech·여성 헬스케어 기술)연구소도 설립했다”고 말

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6월 여성 전용 상품 ‘레디 포(For) 레이디 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레디 포 레이디 운전자보험은 보장 내역을 여성 운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특화했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월 여성을 위한 ‘W-Drive 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손해율을 고려해 성별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있는데 여성 운전자 보험을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게 출시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여성 특화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남성보다 능동적인 여성의 건강관리와 의료지출 습관을 고려했을 때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여성을 위한 건강관리, 해외 펠테크 기업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여성은 남

성보다 예방 목적의 건강관리에 더 적극적이다.

여성은 남성 대비 평균 수명이 길고 임신·출산 등 높은 의료지출의 특징을 보인다 평가했다. 또한 여성의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2030년 펠테크 시장 규모는 약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여성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보험업계의 마케팅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여성 시장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보험연구원의 펠테크 전망 발표에 따라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해 여성 전문 종합보험까지 지속적으로 출시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경남은행 PF대출 횡령규모 1300억 아닌 3000억

77차례 횡령할 동안 점검 등 내부통제 기능 미작동

경남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규모가 기존에 알려졌던 13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규모로 보면 역대 최고치다.

대출서류 위조 등 무려 77차례에 걸쳐 거액을 횡령할 동안 경남은행은 여신관리와 인사, 사후점검까지 내부통제가 총체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지주사인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 PF 부문에 대한 검사를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사고에 대해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이 총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한 대출금 횡령이 1023억원 규모다.

사고자는 2012년 12월부터 2022년 7

월까지 PF대출 차주인 5개 시행사가 대출 취급을 요청한 적이 없음에도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실행했다. 허위 대출금은 무단 개설한 차주 명의 계좌나 본인의 가족, 지인 등의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다. 허위 서류를 작성해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횡령한 것이 1965억원 규모다.

사고자는 2009년 5월부터 작년 5월까지 16개 시행사가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정상 납입했지만 자금집행요청서 등 대출 서류를 위조해 돈을 빼돌렸다. 기존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해당 차주의 대출계좌가 아닌 다른 차주의 대출계좌로 송금하거나 역시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번 거액의 횡령사고는 BNK금융과 경남은행 모두 내부통제 기능이 전반적으로 마비됐던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BNK금융은 경남은행이 지주로 편입된 2014년 10월 이후 한 번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었다. 특히 경남은행은 2020년경부터 PF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경남은행에 대한 지주 자체검사의 경우에도 본점에 대한 사고예방 검사 실적이 전무했다.

경남은행의 경우 PF대출 업무와 관련해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가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

먼저 대출금을 지급하면서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정당계좌만 가능하도록 통제하지 않았다. 대출을 실행하거나 상환할 때도 모두 차주에게 해당 내용이 통지되지 않았다.

인사부문에서도 사고자가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했지

만 명령휴가는 한 번도 없었으며, 본인이 취급한 PF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직무분리도 유명무실했다. 사후에도 여신 승인조건과 약정내용 일치여부 등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해 장기간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대응도 미흡했다. BNK금융과 경남은행은 금융사고 정황을 지난 4월초에 인지했다. 그러나 경남은행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 보고를 지연했고, BNK금융은 석 달이 지난 7월말에 경남은행에 대한 자체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결과와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코로나 대응·고유가 영향에 정부·공기업 100조 적자

한은, 2022 공공부문 계정 발표
95.8조 마이너스… 3년 연속 적자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포함 공공부문이 95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이 늘고, 원유, 천연가스 등 수입 에너지 비용이 증가한 영향이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치)을 보면 일반정부와 공기업 포함 공공부문 수지는 95조8000억원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폭은 전년(-27조3000억원) 대비 늘었다. 공공부문 수지는 정부와 공기업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총수입은 1104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109조1000억원(11%) 증가했다. 일반정부의 조세수입이 큰 폭으로 늘고, 공기업 매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공공부문 총지출은 1199조8000억원으로 같은기간 177조6000억원(17.4%) 늘었다.

이인규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총지출 중 공기업 중간소비와 기타경상이전소비가 늘었다”며 “2022년은 방역관련지출, 2021년은 백신접종 관련 지출, 지난해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늘며 기타경상이전 소비가 증가했고, 금융공기업은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비용이 증가해 지출이 늘

었다”고 말했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수지는 39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3년 연속 적자다.

일반정부의 총수입은 843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3% 늘었고, 총지출은 883조원으로 12.4% 증가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총 수입이 확대됐지만, 코로나19 관련지출 등으로 최종소비지출(정부서비스 생산비용, 건강보험 급여비)과 기타경상이전(민간 지원금) 등이 증가해 총지출이 총수입을 앞질렀다.

일반정부 중에서도 중앙정부는 3년



지난해 코로나19로 공기업 포함 공공부문에서 95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연속 적자를 지속했다. 조세 수입이 증가했지만, 코로나19 방역등으로 지출이 높은 수준을 기록해 80조6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적자폭은 전년(52조2000억원) 대비 확대됐다.

지방정부는 7조6000억원 증가해 전년 수준의 흑자를 기록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카드 News



우리카드 카드의정석 가입자 추가할인 혜택 제공

우리카드가 카드의정석 가입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 해외 항공권 및 호텔 예약 플랫폼서 할인

우리카드는 독자카드 신상품인 카드의정석 3종 활성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행사 대상은 최근 5개월간 우리카드 이용실적이 없는 고객이다. 오는 12월 말까지 ‘카드의정석 에브리원’카드를 이용하면 10만원 한도 내에서 4% 추가할인을 적용한다.

해외 목표 달성 행사를 진행한다. 국내외 목표금액을 달성하면 중복 혜택도 가능하다. 추가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신규 자동납부 시 최대 3만원을 지급한다.

항공권 최대 15% 할인행사를 선보인다. ‘에브리 마일 스카이프스’의 경우, 해외결제 수수료 1.3%를 면제한다. 해외가맹점 이용 시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카드 스마트싱스 파인드 IoT 카드 협력계약

KB국민카드가 업무협약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분야에 진출했다.

◆ 신용카드에 전자기기 접속

KB국민카드는 아멕스카드 및 삼성전자와 ‘스마트싱스 파인드(SmartThings Find)’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IoT 카드 협력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싱스 파인드는 삼성전자의 IoT 플랫폼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착용컴퓨터 등을 전 세계 어디서든 찾을 수 있는 위치 관리 플랫폼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용카드에 저전력 블루투스 기능(BLE, Bluetooth Low Energy)을 탑재한다. 스마트폰과 신용카드를 연동해 위치 확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카드위치 확인 기능(약 7일간의 위치기록 포함) ▲카드하단 스마트버튼으로 핸드폰 찾기 ▲기기간 알림제공 등이다. 무선충전을 사용 반복 재충전이 가능하며 배터리 교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기아·한국지엠 노사 입장차 ‘뚜렷’… 추석 이전 타결 불투명

완성차업계 임단협

현대차 5년 연속 무분규 마무리
르노코리아 2차 잠정합의안 타결
KG모빌리티 지난달 초 조기 협상

국내 완성차 업계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타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5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 교섭을 마무리한 가운데 르노코리아자동차도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자동차 부문 핵심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도 임단협을 마무리하며 협력 기조를 이어갔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기아와 한국지엠만 남은 상황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이달 12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고 18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58.8%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현대차 노사는 ▲기본급 4.8% 인상(11만1000원, 호봉 승급분 포함) ▲2022년 경영실적 성과금 300%+800만원 ▲‘세계 올해의 자동차’ 선정 기념 특별격려금 250만원 ▲2023년 단체교섭 타결 관련 별도 합의의 주식 15주 ▲전통시장상품권 25만원 지급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또 국내 공장을 중장기 미래사업 핵심 제조기



현대차·기아 양재사옥

지로 전환하기 위한 ‘노사 미래 동반 성장을 위한 특별협약’도 체결했다. 게다가 단체교섭 진행과 별도로 노사 공동의 ‘저출산/육아지원 TFI’를 구성해 직원들의 임신, 출산, 육아 등 생애 주기에 기반한 ‘저출산 대책 관련 특별합의서’를 작성했다. 현대모비스도 같은 날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61.7%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르노코리아는 지난 19일 올해 임협을 무분규로 타결했다. 르노코리아 노사는 올해 5월 1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세 차례의 실무교섭, 여덟 차례의 본 교섭을 진행했다. 지난 7월 18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47.4% 찬성을 기록해 부결됐다.

이어 지난 14일 열린 8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10만원 인상 ▲타결 일시금 270만원 ▲변동 PI 100만원 ▲노사화합 비즈포인트 31만원 ▲영업사업소 수익성 개선 및 유지를 위한 노사 공동 노력 등의 내용의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19일 실시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57.1% 찬성을 얻어 2년 연속 무분규로 타결됐다.

KG 모빌리티는 지난 8월 4일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일찌감치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협상 시작 두 달 만에 합의를 이끌어내며 14년 연속 무분규 타결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다만 기아와 한국지엠은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아 노조는 공정한 성과 분배와 미래 고용 확보, 최대 실적에 맞는 복지 확대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첨예한 대

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기아 노조는 내달 1일부터 생산 특근 중단을 선언하며 사측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기아 노조는 지난 2021년과 2022년을 제외하고 약 10년 연속 파업을 진행했다. 2021년과 2022년은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무분규로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다만 현대차 노조가 임단협을 마무리 하면서 기아도 비슷한 수준에서 타결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기본급 7만원 인상, 성과금 1000만원 등이 담긴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지난 12~13일 진행된 조합원 투표에서 59.1%가 반대해 부결됐다.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서 노조는 지난 14일 중앙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교섭 방향 등을 논의한 상태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를 비롯해 완성업계가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협력에 나선 만큼 남은 업체들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 노조의 협상 타결 소식에도 이전과 달리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예상보다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차 수소생산 패키지 H2 MEET ‘베스트 픽’

현대자동차그룹의 ‘자원순환형 수소생산 패키지’가 ‘H2 MEET 2023’에서 언론이 뽑은 수소산업 분야 최고 제품으로 선정됐다.

H2 MEET 조직위원회는 한국자동차기자협회와 공동 주관해 진행한 ‘H2 MEET 베스트 프로젝트 미디어 어워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본 어워드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 ‘H2 MEET 2023’을 방문한 55개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소속 매체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대상인 ▲베스트 픽(Best Pick)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자원순환형 수소생산 패키지’, 최우수상인 ▲엑셀런트 픽(Excellent Pick)은 포스코에너지의 ‘그린수소·블루수소 생산플랜트’, 삼정이앤씨의 ‘수소가스 제어시스템’이 각각 선정됐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삼성전자-미시간대학교

‘갤럭시’ 기능 강화 맞춘

삼성전자가 갤럭시워치의 피트니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미시간대학교 연구기관인 운동 및 스포츠 과학 이니셔티브와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2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갤럭시워치를 통해 제공하는 최대 산소섭취량(VO2max)과 땀 손실 추정치(Sweat loss) 데이터를 최적 표준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고, 갤럭시워치가 측정하는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흔 박 삼성전자 MX 사업부 디지털 헬스 팀장 상무는 “건강 및 스포츠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한 미시간 대학 연구진과의 협업으로 보다 정확하고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XCR’ 국제 표준 제정

전세계 디스플레이업계가 삼성디스플레이가 만든 밝기 측정법을 사용하게 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국제반도체재료장비협회(SEMI)에서 ‘채광 휘도(XCR)’ 측정법을 국제 표준으로 정식 제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XCR은 삼성디스플레이가 고안한 새로운 밝기 측정법이다. 휘도가 같아도 색재현력이 우수한 디스플레이가 더 밝아보이는 현상인 ‘헬름홀츠-콜라우쉬(H-K)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표준화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앞으로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채광휘도가 높은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실제 시청환경에서 월등히 향상된 밝기 성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

현대모비스, ‘2040 RE100’ 등 환경경영 박차

글로벌 친환경 정책 선 대응 저탄소·에너지효율화 초점

현대모비스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순환 경제 구현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미래차 핵심 기술력 확보뿐만 아니라 저탄소·에너지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환경 경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투자자와 고객사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 같은 친환경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0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RE100에 가입했다. RE100은 기업 소비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약속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현재 현대모비스가 국내의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85% 이상은 전력 사용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RE100 목표 달성은 사업장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현대모비스 울산동화공장 태양광 발전 패널.

현대모비스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은 ‘2040년 사업장 탄소중립 달성, 2045년 공급망까지 탄소중립 완료’로 요약된다.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사업장의 탄소 감축을 시작으로 공급망과 제품, 지역 사회 등 전 밸류체인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현대모비스는 ‘2040 RE100 로드맵’을 공개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세부 감축 목표를 단계적으로 수립했다. 현대모비스는 중장기 RE100 이행 방안을 총 3단계로 수립했다.

세부적으로는 2025년 35%, 2030년 65%, 그리고 204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먼저 환경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국내외 100여개 넘는 사업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에너지 관리담당 130명으로 구성된 RE추진단을 발족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주요 정책과 트렌드를 살피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네이버,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큐:’ 공개

시범 출시… 베타 서비스 접수

네이버가 ‘클로바X’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인 ‘Cue(큐:)’를 공개했다. 복잡한 질의에도 사용자의 의도를 빠르게 파악하며 네이

버의 다양한 서비스와 연결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는 20일 큐:를 시범 출시하고 전용 사이트를 통해 베타 서비스 신청 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큐:는 직관적인 답변으로 일반 사용자에게 새로운

검색 경험을 제공하고 쇼핑, 페이, 플레이스 등 폭넓은 네이버 생태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가 지난달 출시한 대화형 AI 서비스인 ‘클로바X’와 비교하면 하이퍼클로바X 기반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사용성 측면에서 문서 작성이나 창작보다 검색에 특화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

시각·미각 사로잡았다… 요즘 사람들의 이유있는 ‘가전구매’

특정 목적에 따라 추가가전 구입
가전업계, 아이디어 상품 출시 봇물
LG전자 ‘스탠바이미 고’ 유럽서 찬사
삼성 갤럭시 작품 4K 화질 ‘더 프레임’

캠핑을 즐긴지 5년 여 된 캠핑족(族) 김영아(35)씨는 최근 빔 프로젝터를 눈여겨 보고 있다. 캠핑 때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만큼 주요하게 살펴보는 기능은 ‘휴대성’이다.

김씨는 “집에도 빔 프로젝트가 있지만 가지고 다니면서 보기엔 좀 커서 구입하기로 했다”며 “야외에서도 어두워지면 텐트를 스크린 삼아 빔 프로젝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캠핑족들은 분위기를 돋을 감성적인 영상을 틀어두기도 하고,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용해 영화를 감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특정 목적을 위해 기본가전의 대안으로 추가 구입하는 가전은 과거에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오디오와 스피커의 다른 목적 대안으로 카세트테이프가 나왔다. 전과 다른 것은 기능과 품목에 한계가 없다는 점이다. 최근 모바일폰 등을 제외하고 가장 빠르게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가 등장하는 가전으로는 냉장고와 텔레비전을 꼽을 수 있다.

‘1가구 1가전’의 시대가 저물고 ‘1할



LG전자가 오는 24일까지 서울 롯데월드몰에서 신개념 포터블 스크린 ‘LG 스탠바이미 Go’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방문객들은 통나무 산장 콘셉트의 캠핑 공간에서 LG 스탠바이미 Go의 다채로운 매력을 체험할 수 있다. /LG전자

동 1가전’의 시대가 열렸다. 한 개의 가전으로 다양한 활동을 겸하는 대신 특정 목적에 따라 추가 가전을 구입하는 추세 가 확산하고 있다. 가전은 과거 한 가정에 텔레비전 1개, 냉장고 1개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주료가전은 한 대만 구비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최근에는 국내 소비자들의 소득 규모가 세계 선진 수준에 이르고, 전자업계는 기술 발전으로 중저가 가전 출시가 가능해져 부유층이 아니라도 같은 기능의 가전을 여러 대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었다.

특히 과거에는 주로 음악을 듣는 등 청각적 만족을 위해 가전을 추가했지만 요즘은 시각과 미각까지 추가한 가전으로 추구할 수 있게 됐다.

18일 <메트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들 사이 같은 기능이라도 각 목적에 맞춰 가전을 여러 대 구입하면서 가전업계도 전에 없던 아이디어 상품을 활발히 출시하고 있다.

냉장고는 업계에서 이미 목적에 따라 특화된 제품이 시장에 쏟아진지 오래다. 1976년 프랑스에서 처음 유로가브

(EuroCave)가 와인 냉장고(와인셀러)를 내놓으며 특화형 냉장고는 현재에; 이르러 이동용 냉동고에까지 이르렀다.

특히 유래없이 국내에서는 특화형 냉장고 중 김치냉장고가 폭발적인 인기다. 위니아가 1995년 출시한 담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끈 후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보급률이 90%에 이르렀다. 특히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3인 이상 가구들은 모두 95% 이상에 이른다.

영상가전인 텔레비전은 2018년 경부터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텔레비전의 고정된 한정적인 크기에서 벗어나 더욱 큰 화면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미니 빔 프로젝트를 주목했다. 최근에는 아예 이동용 스크린으로 불리는 스크린이 인기다.

LG전자가 지난 5월 출시한 포터블 스크린 ‘LG 스탠바이미 고(GO)’는 이달 독일 베를린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2023에서 “최고의 제품(best in show)”라는 찬사를 받았다. 영국 트러스트리뷰(TrustedReviews)는 스탠바이미 고를 “IFA 2023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제품이자 언제 어디서든 넷플릭스를 즐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캠핑·여행 장비”로 평가했다.

스탠바이미 고는 출시 한 달만에 1만 대 이상을 판매하며 호평을 얻은 이동식 영상가전 ‘스탠바이미’의 후속작이

다. 스탠바이미는 27형 텔레비전으로 일반 텔레비전보다 작지만 무빙스탠드로 집안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스탠바이미 고는 이동 편의성을 더욱 극대화해 야외를 무대로 삼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15일 세계적인 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이 보유한 세계적인 명작 38점을 엄선해 삼성 아트 스토어에 추가했다. 삼성 아트 스토어는 아트 콘텐츠 구독서비스로 2017년 첫 출시한 라이프스타일TV ‘더 프레임(The Frame)’에 전 세계 유명 미술관·갤러리의 2300여 점의 작품을 4K 화질로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더 프레임이 단순히 명화를 TV로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명암과 색감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조도 센서 기술’을 통해 선명한 색채와 강렬한 붓 터치까지 정교하게 재현해준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장 먼저 사람들이 집에 있음에도 다른 활동을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구입한 전자기기들은 대체로 청각과 소리와 관련된 기기들이었다”며 “최근에는 기술발전으로 전자기기의 내구성을 높이고,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게 돼 대형 가전들이 담당한 시각과 미각과 관련한 기기들이 각광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현대차그룹, 미래 모빌리티 인재확보 나서

조지아공대와 핵심 기술 협업
배터리·수소에너지 등 협력
기술·인적 교류 통해 성과 기대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모빌리티 혁신 기술 확보를 위해 글로벌 인재 발굴·육성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공대와 미래 모빌리티 협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보유한 조지아공대와 배터리, 수소에너지, 소프트웨어 등 미래 모빌리티 관련 산학 협력을 통해 미래 핵심 기술과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체결식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장재훈 현대차 사장, 양헬 카브레라 조지아공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글로벌 유수 대학과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정의선 회장은 조지아주 전기차 신공장 건설 현장 방문 당시 조지아공대와 협력 방안 모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아공대는 세계 최고 권위의 대학 평가 기관인 THE와 QS가 올해 발표한



소니 퍼듀 조지아주 공립대학 협의회 의장(뒷줄 왼쪽)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뒷줄 오른쪽)이 박수를 치고 있는 가운데 차우키 압달라 조지아공과대학교 연구담당 수석 부총장(앞줄 왼쪽부터), 양헬 카브레라 조지아공과대학교 총장,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사장(COO)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글로벌 공과대학 순위에서 각각 11위와 12위에 이름을 올린 연구중심 공립대학이다.

정몽구 명예회장 때부터 이어진 조지아주와의 각별한 협력관계를 맺어온 바 있다. 2006년 당시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선 기아 사장은 기아의 미국 첫 생산기지 위치를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로 선정했다. 조지아주의 우수한 입지조건, 소니 퍼듀 주지사를 비롯한 조지아주의 적

극적인 협력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소니 퍼듀 당시 조지아 주지사는 현재 조지아주 공립대학 협의회 의장으로 향후 현대차그룹과 조지아주의 산학 협력에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대차그룹 신설 전기차 생산 거점이 조지아주에 집중돼 있어 활발한 기술 및 인적 교류를 통해 성과가 기대된다.

/양성운 기자 ysw@

특허 보유 中 10곳 중 1곳 ‘기술탈취’ 경험

기술탈취 근절 위한 정책 수요조사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10곳 중 1곳 이상이 기술탈취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탈취 피해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정부가 피해사실 입증을 위한 지원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경험에 있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기술탈취 근절 위한 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해 20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10.7%는 기술탈취 피해경험이 있었다. 기술탈취 피해를 경험한 업체 중 43.8%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유는 ‘기술탈취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78.6%로 가장 많았다.

피해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에 대해선 피해경험이 있는 업체 10곳 중 7곳이 ‘정부의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지원’(70.6%)을 꼽았다.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23.5%)가 그 뒤를 이었다.

2021년 정부가 기술탈취 피해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법에 도입한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규정이 잘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피해기업이 자료를 특정해서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가해기업이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정확한 특정이 어렵다’(53.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피해입증 지원제도 개선방안 일환으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민사소송시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88.0%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19.0%, 필요하다 69.0%)고 응답했다.

/김승호 기자 bada@

SKT, 차세대 철도통신망 ‘이음 5G-R’ 구축

4.7GHz 주파수 대역 사용

SK텔레콤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함께 차세대 철도통신인 이음 5G-R 통신 시험망 구축 및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음 5G-R은 5G 기

반 철도통신망으로, 350Km/h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기차에서도 5G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번 시험망에서는 4.7G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이음 5G를 활용한다. 현재 국내 철도에는 LTE망을 활용하는 LTE-R이 적용돼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디지털 전환을 위한 이음5G-R 핵심기술 개발’ 과제를 ‘23년부터 ‘26년까지 총 4년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에는 5G SA 기반의 이음 5G-R 시험망 구축 및 커버리지 연장 기술,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철도 특화 서비스, QoS 실증 등이 진행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폐기물 재활용률 100% 달성

삼성SDI는 국내 전 사업장이 글로벌 안전과학 전문기업인 UL솔루션즈(UL Solutions)의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 중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을 획득했다.

20일 삼성SDI는 삼성SDI 기흥과 청주 사업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폐기물 재활용률 100%를 달성해 2년 연속 플레

티넘 등급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은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에 따라 각각 플래티넘(100%), 골드(99~95%), 실버(94~90%) 등급으로 나뉘며, 기업의 자원순환 노력을 평가하는 글로벌 지표로 활용된다. 천안, 울산, 구미, 수원의 사업장도 올해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해 국내 모든 사업장이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허정원 기자 zelkova@

수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미 선택한 검증된 학습법 링크

과목/ 수준 모두 “ 선택할 수 있는 진짜 **맞춤** 학습 ” 링크를 경험해 보세요

한글(국어), 수학, 영어 모두 시작하려는 아이도
영어만 지금 필요한 아이도 모두 OK!



지금 무료체험 신청시,
알파벳 + 수학 브로마이드 2종도 선물!



수학
브로마이드



알파벳
브로마이드



1위 학습 링크, 무료체험 신청 방법

지금 바로 우측의 QR 코드를 통해 링크 무료체험을 신청하세요!





도보권에 관악역... 초·중·고 ‘학세권’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 GS건설

GS건설은 9월 중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서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 483가구 중 49~73㎡ 21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별로는 ▲49㎡ 41가구 ▲59㎡ 169가구 ▲73㎡ 2가구로 구성된다.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는 우수한 교통여건을 갖췄다. 먼저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KTX광명역도 차로 약 7분 거리다. 또한 월곶~판교선 만안역(가칭)이 도보거리에 계획되어 있으며, 광명역에는 여의도를 연결하는 신안산선이 공사중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서울 진출이 편리해진다. 아울러 경수대로, 서해안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차량을 이용한 서울 접근성 역시 뛰어나다.

화장초가 단지에 인접해 있고, 안양중, 안양여중, 충훈고, 안양고로 통학할 수 있으며, 안양시립 석수도서관도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다. 또한 사방이 외곽

산, 꽃메산, 석수산으로 둘러싸인 ‘숲세권’ 아파트고, 안양천, 충훈공원, 안양새물공원 등에서도 여가를 즐길 수 있다.

편의시설도 두루 갖췄다. 광명역 부근에 들어선 이케아, 롯데몰, 코스트코, 중앙대병원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안양1번가, 당리단길, 안양중앙시장 등 편의시설이 가까이 위치해 있다.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GX룸, 사우나, 작은도서관, 독서실 등이 예정돼 있고, 단지 내 수경시설이 어우러진 다양한 조경도 계획돼 있다.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는 1순위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은 주택을 보유해도 청약 가능하며, 전용면적 85㎡ 이하로만 공급되어 6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가점이 낮아도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안양시에 거주할 경우 안양시 우선공급 자격을 얻는다.

건본주택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석수전화국 사거리 일대)에 마련된다. (1833-2521)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실수요자 유리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인천도시공사·DL이앤씨 컨소시엄

인천도시공사와DL이앤씨 컨소시엄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10-1블록에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59~104㎡ 1458가구를 분양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A 271가구 ▲59㎡B 312가구 ▲84㎡A 393가구 ▲84㎡B 50가구 ▲84㎡C 124가구 ▲84㎡T 14가구 ▲84㎡PH 2가구 ▲104㎡A 196가구 ▲104㎡B 96가구 등이다.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는 인천도시공사와 DL컨소시엄(DL이앤씨 외 5개 업체)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참여공공주택 사업이다.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된다.

단지는 85㎡ 이하(59~84㎡) 국민주택과 전용 85㎡ 초과(104㎡) 민영주택으로 구성된다. 국민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비중이 전체의 70%에 해당돼 신혼부부인

젊은 수요층과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에게 유리하다.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 경과, 납입 횟수 12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된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면적 및 지역별 예치 금액 충족 시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단지 내에는 e편한세상의 프리미엄 조경 브랜드인 ‘드포엠(dePoem)’을 적용한다. 드포엠의 대표 공간인 드포엠파크가 단지 중앙에 조성되며, 그린카페, 잔디마당, 수경시설이 들어선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스트 분사 시설이 갖춰져 있는 미스티 포레를 포함해 글램핑 가든, 아트 가든 등 다양한 콘셉트의 4가지 가든도 조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실내 골프연습장과 스크린 골프, 가족운동실, 피트니스센터를 비롯해 건식사우나, 키즈체육관, 키즈라운지(다함께 돌봄센터) 등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032) 278-1500



동탄·용인·평택 ‘직주근접’ 단지

오산 호반씨밋 라프리미어 호반건설

호반건설이 이달 경기 오산세교 2지구에서 ‘호반씨밋 라프리미어’ 59~84㎡ 1030가구를 분양한다. 타입별 가구수는 ▲59㎡A 28가구 ▲59㎡B 263가구 ▲59㎡P 398가구 ▲84㎡ 272가구 ▲84㎡P 69가구다.

호반씨밋 라프리미어가 들어서는 오산세교 2지구는 오산시 궏동·금암동·가장동·가수동 일대 연면적 280만 7000㎡, 수용인구 1만 8000여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주거지로 개발 중이다. 택지 지구(또는 공공택지) 내 분양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오산세교 2지구는 북측으로는 동탄신도시, 동측으로는 용인시, 남측으로는 평택시의 중간에 위치해 삼성반도체 평택 캠퍼스, 용인에 조성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직주근접 입지가 강점이다. 이 밖에도 가장일반산업단지를

비해 다수의 산업단지가 인근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 1호선 오산역(급행역)이 가깝고, 경부고속도로(오산IC), 봉담동탄고속도로(북오산IC), 서부외도로(일부 개통), 삼미터널·필봉터널 등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도 편리하다. 또한, 오산~동탄~기흥을 연결하는 분당선 연장, 동탄트램 등도 추진 중이다.

호반씨밋 라프리미어는 초등학교·고등학교 예정 부지가 도보거리에 위치하고, 인근에 공공청사 및 근린생활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

전 가구를 판상형 구조에 4베이(Bay·전면을 향하고 있는 방, 거실의 개수) 설계,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또한, 3면 발코니, ‘ㄷ’ 자형 주방 등 일부 가구에서는 특화 설계도 적용된다.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다채로운 컨셉의 테마별 커뮤니티 광장이 조성된다. 건본주택은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에 위치한다. (1670-3511)



오전역·GTX-C 등 대중교통 호재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 태영건설

태영건설은 오는 10월 경기도 의왕시에서 오전·‘나’구역 재개발을 통해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 733가구 중 37~98㎡ 53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별로는 ▲37㎡A 74가구 ▲37㎡B 18가구 ▲59㎡A 21가구 ▲59㎡B 185가구 ▲84㎡A 193가구 ▲84㎡B 19가구 ▲98㎡ 22가구다.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은 인덕원~동탄선 오전역(예정)을 단지 바로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초역세권(예정) 입지가 돋보인다.

인덕원~동탄선은 인덕원에서 서동탄까지 약 39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1·9공구는 2021년 착공 후 공사중인 상태다. 나머지 구간들 또한 지난 7월 기재부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를 완료, 올해 연말까지 전구간 공사계약 체결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오전역(예정)은 인덕원~동탄선

급행역으로 다음역인 인덕원역에서 GTX-C(예정)·4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다. 인덕원역에는 월관선(월곶~판교선)도 예정되어 있어 판교까지 생활권역이 넓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행으로는 3개 역(급행 기준)만 이동하면 동탄역에서 GTX-A노선(예정)과 SR-T까지 이용 가능하다.

안양IT밸리, 군포제일공단 등 대형 산업단지가 인근에 위치해 현대캐피코, 롯데캐미칼 등 대기업 직주근접 수요도 갖췄다. 군포 당정동에 바이오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 연구개발(R&D) 혁신 허브 조성이 계획된 점도 눈길을 끈다.

여기에 모락산, 모락공원, 보식골로 어린이공원, 오전로 가족공원 등 공원과 모락둘레길을 통해 자연을 누리기 좋다.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은 전 세대 남향위주로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로 조성된다.

건본주택은 사업지 인근인 오전동 일원(모락로 사거리)에 마련될 예정이다.



입지·금리 이 체크 공 하세요”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추
가 확산하는 양상이다. 일부 아파트
큰 곳도 나왔다. 부동산시장에선 분
집마련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
상 등을 지켜보면서 상대적으로 분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청약에
/이규성 기자 peace@metroseoul.co.kr



29층 압도적 전망... ‘사통팔달’ 입지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대우건설

대우건설은 오는 10월 충남 논산에서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433가구를 분양한다. 타입별 분양 가구수는 ▲84㎡A 259가구 ▲84㎡B 94가구 ▲84㎡C 12가구 ▲103㎡A 68가구다.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논산IC(호남고속도로), 연무IC(논산~천안고속도로)를 모두 끼고 있다. 논산을 십자(+) 형태로 가르는 득안대로와 동안로도 인접하다. 연무대 고속버스터미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호남선 고속화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논산에서 대전 가수원까지 굽은 철길을 곧게 펴고, 육군 논산훈련소까지 고속철도(KTX)를 놓는다. 호남선 고속화사업 완료시 논산푸르지오 더 퍼스트 근거리에서 KTX신연무대역(신설예정)을 이용할 수 있다.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시공능력 평가 3위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브랜드 파워에 걸맞은 차별화된 설계가 고스란

히 적용돼 지역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할 예정이다. 먼저 논산 최고 29층 높이의 압도적 전망을 자랑하고, 지상에는 차가 없는 공원형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된다.

전 가구는 넉넉한 중대형 평면으로 4베이(bay)-4룸(Room), 대면형 주방 등 최신 트렌드가 적용된 구조 역시 돋보인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독서실, 어린이집, 게스트하우스, 맘스스테이션 등 다양한 입주민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선다.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비규제지역이라 청약요건도 까다롭지 않다.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며 주택을 보유해도,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논산은 물론 충남 전역과 세종, 대전까지 1순위로 청약 가능하다. 또한,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지 않으며 전매 기간 및 횟수 제한이 없는 점도 특징이다. 견본주택은 10월 논산 내동(논산고 인근)에서 오픈 예정이다. (041)733-0811



인프라 즐비... 특화지구 속 ‘노른자’

더샵 소양스타리버 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가 오는 10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서 ‘더샵 소양스타리버’ 39~112㎡, 1039가구 중 855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춘천소양축진2구역재건축정비사업으로 들어서는 ‘더샵 소양스타리버’는 타입별로 ▲39㎡ 40가구 ▲59㎡ 358가구 ▲75㎡A 72가구 ▲75㎡B 150가구 ▲84㎡A 109가구 ▲84㎡B 87가구 ▲84㎡C 18가구 ▲112㎡ 21가구다. 단지가 들어서는 소양축진2구역재건축정비사업은 도심권 정비사업인 만큼 주변으로 교통, 문화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며, 일대가 행정·교육·금융·상업 중심 특화지구로 개발될 예정이다.

단지와바로 인접한 캠페이지는 여의도 공원3배 규모의 춘천시민공원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춘천 시민공원에는 거대한 오픈필드, 다양한 주제의 미세먼지 차단숲, 창작종합

지원센터, 다목적체육관을 비롯한아이스링크, 조망휴게소, 생태습지원, 펫파크, 숲도서관, 구름연못, 잔디테라스 등 다양한 기능의 시설물이 들어선다.

‘더샵 소양스타리버’는 경춘선 춘천역이 가깝다. 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가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으로 향후 동서고속화철도 이용시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 주변으로는 소양강, 봉의산, 춘천평화생태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더샵’만의 차별화된 설계도 돋보인다. 포스코이앤씨의 스마트홈 서비스인 아이큐텍(AiQ TECH)으로 조명, 난방, 가스 차단 및 환기 등을 외부에서도 제어할 수 있고, 승강기 내부 UV-CLED 살균 조명을 설치해 미세한 바이러스 및 세균을 제거한다. 또, 춘천 시내와 의암호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크뮤니티와 함께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레고카페, 키즈클럽 등 커뮤니티시설이 다채롭다.



역세권·학세권·팍세권 ‘3박자’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 현대건설

현대건설은 이달 서울시 관악구 일원 ‘봉천 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 997가구 중 58~59㎡ 101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분양가는 8억7500만원 수준이다. 일반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58㎡A 2가구 ▲58㎡B 17가구 ▲59㎡A 1가구 ▲59㎡B 43가구 ▲59㎡C 38가구 등이다.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은 반경 1.2km 내 지하철 2호선 봉천역과 7호선 송실대입구역이 위치해 있다. 이 노선을 이용하면 강남역, 노현역까지 환승 없이 2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하다. 서부선 경전철 개통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서부선 경전철은 새절역(6호선)~여의도~서울대입구역(2호선) 총연장 15.8km를 있는 노선으로 정거장 16개소 개통이 예정돼 있다. 올해 안에 실시계약 체결될 계획이다. 공사기간은 총 72

개월이며, 올해 안에 착공하게 되면 2029년 준공될 전망이다.

단지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500m 안에 구암초, 구암중, 구암고 등이 위치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인근에 대형 공원이 있다. 단지를 둘러싼 상도근린공원은 약 35만9342㎡ 규모로 이곳에 마련된 유아숲 체험장, 국사봉체육관 등에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은 이러한 상도근린공원과 어우러진 공원형 단지로 조성된다. 단지 내 일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 밖에 성현드림숲공원, 보라매공원 등이 가깝다.

주변에 김스클럽봉천점, 롯데백화점관악점 등 쇼핑·편의시설과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중앙대학교병원 등 대형 병원이 위치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은 현대건설이 관악구에서 1999년 이후 23년 만에 분양하는 아파트다.



합리적 분양가에 중복 청약도 OK

광주 첨단 제일풍경채 제일건설

제일건설이 광주광역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에서 ‘첨단 제일풍경채’를 선보인다. A2블록은 59~84㎡ 1845가구, A5블록은 116㎡~184㎡ 584가구를 분양한다. 첨단 제일풍경채는 59㎡ 소형부터 184㎡ 대형까지 다양한 평면을 구성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분양일정은 오는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27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는 A2블록은 10월 11일, A5블록은 10월 10일 각각 발표되며, 계약은 10월 23~2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두 블록의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분양가가 적용됐다.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A2블록 84㎡ 분양가는 3억9600만~4억8800만원, 59㎡는 2억8900만~3억5900만원으로 인근에 분양한 단

지보다도 저렴한 수준이다.

첨단 제일풍경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또,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첨단 제일풍경채 견본주택에서는 최근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벤트에서는 매일 선착순 300명에게 라면 등 생필품을 증정하고,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스타일러, 스탠바이미, 전기밥솥과 에어프라이어 등 100만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했다.

첨단 제일풍경채 분양 관계자는 “첨단 제일풍경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로 인근 아파트들과 비교해볼 때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했다”며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고객 이벤트도 준비한 만큼 많은 고객들이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1551-1201)

外人, 이달 국내증시 1.2兆 순매도… 하반기 전망도 ‘먹구름’

韓-美 금리 차이 2%p… 사상최대
올 경제성장률 1%대 중반도 안 돼
선물시장도 매도 우위로 돌아서
상장채권 총 3830억 순회수 나서
中 경기침체 깊어질수록 불안 가중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선·현물 모두 연일 매도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채권시장에서도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사상 최대인 2%포인트(p)까지 벌어지면서 한국 시장의 매력이크게 떨어진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1%대 중반도 장담 못할 정도로 향후 전망도 어두워진 탓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은 이달 들어 전일까지 1조 2758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지난달에도 순매도 규모가 1조 1790억 원에 달했다.

이날 역시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1679억원, 1103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종목별로 보면 이달 들어 POSCO홀딩스를 비롯해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등 2차 전지 관련주가 순매도 상위에 올랐다.

이번주 들어서는 현물 시장 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 우위로 돌아섰다. 현재 시장 상황이 불안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전망도 밝게 보지 않을 것을 해석할 수 있다.

채권 시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채권 8조 9750억원을 순매수하고, 9조 3580억원을 만기상환 받아 총 3830억원을 순회수했다. 순회수로 돌아선 것은 지난 2월 이후 6개월 만이다. 국채만 사들였고, 통안채 등은 대규모로 순회수에 나섰다.

일단 한국 시장 자체에 대한 매력이크게 떨어졌다.

지난 7월 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베이비스텝’(한번에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것)을 밟으면서 한미 금리차는 2%p까지 벌어졌다. 전일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증가 기준 4.364%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흥시장에서 금리까지 낮으니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가 됐다.

금리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현지시간 20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지만 시장에서는 연준이 연내 한 차례는 더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반기 경기 전망도 어둡다. 금리 격차가 벌어져도 한국 입장에서는 하반기 금리를 힘든 여건이라는 얘기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깊어질 경우 우리의 실물경제 위축은 물론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면서 한국 성장률 전망은 기준과 같은 1.5%를 유지했다. 특히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를 1.8%까지 올려 한국을 앞지를 것으로 봤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로 OECD보다도 낮은 각각 1.3%, 1.4%를 제시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의약품 품질관리·진단 플랫폼社 도약”

IPO 간담회

에스엘에스바이오

시험항목·품목 300개 보유…독보적
임상시험분석 등 기법 개발·지원
영업익률 업계평균치 월등히 높아

“연구개발, 시설확충 등에 집중 투자해 신기술과 신제품의 개발 및 상용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인허가 및 제품 등록을 추진해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뛰어난 R&D 역량, 첨단 인프라, 독보적인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의약품 품질관리 및 진단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이영태 에스엘에스바이오 대표이사가 20일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 기자 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이전 상장에 대한 전략과 비전을 밝혔다.

바이오벤처 기업인 에스엘에스바이오는 2007년 설립돼 2016년 코넥스 시장에 상장했으며, 현재 코스닥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다. 주요 사업 영역은 ▲주력 캐시카우 사업인 ‘의약품 품질관리’ ▲전략적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약개발 지원’ ▲원천기술인 NTMD, NALF 플랫폼 기술 기반의 ‘인체·동물용 체외진단기기 연구·개발 및 판매’ 등이다.

주력 사업인 ‘의약품 품질관리’는 의약품 생산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기준 적합성을 검증하는 사업이다. 특히 수입되는 완제 의약품의 경우 전 제품에 대한 검증을 필요로 해 사업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현재까지 300개 이상의 시험 항목·품목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독보적인 승인 항목·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빅파마를 비롯한 주요 바이오 기업을 고객사로 다



이영태 에스엘에스바이오 대표이사가 20일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 기자 간담회를 열고 향후 전략과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스엘에스바이오

수 확보하면서 높은 레퍼런스를 기록하고 있다.

구축한 고객사 네트워크는 회사가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약개발 지원’ 사업의 성장성으로 이어진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식약처 지정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서 신약개발 기업의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시험분석, 효능 검사, 독성 검사, 역가·순도·함량 분석, PK(약물동력학) 분석 등 다양한 분석·검사 기법을 개발 및 지원하고 있다.

에스엘에스바이오의 강점 중 하나는 탄탄한 재무구조이다. 당사는 지난해(2022년) 매출액 108억원, 영업이익 24억원, 당기순이익 28억원을 달성해 전년 대비 높은 실적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영업이익률은 22.5%로 업계 평균(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익성을 보였다. 이를 통해 자력으로 수익·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어 앞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보다 적극적인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에스엘에스바이오의 총 공모주식수는 77만주로, 100% 신주 모집이다. 주당 공모 희망가 범위는 8200원부터 9400원이다. 이에 따라 총 공모 예정 금액은 희망가 밴드 상단 기준 약 72억원 규모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CFD 잔고 반토막… 증권사 재개시기 ‘눈치’

거래 중지 전비 1.5兆 감소
교보증권 등 서비스 다시 시작
NH 등 8곳, 연내 재개 나설 듯

일부 증권사들이 차액결제거래(CFD)를 다시 재개하고 있으나 CFD 잔고는 주가조작 사태 이전과 대비해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투자자 관심이 줄어 들면서 CFD의 서비스 재개를 두고 증권사들의 눈치 싸움이 한창이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증거금 포함 CFD 명목 잔고는 1조 2785억원으로 집계됐다. CFD의 거래가 중지되기 전인 지난 3월말(2조 7697억원)에 비하면 1조 5000억원 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 가격 변동 위험에 투자해 차액을 얻을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으로 지난 1일 거래가 재개됐다. 앞서 지난 4월 소

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CFD가 지목되면서 국내 증권사들 대부분이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이후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이 서비스를 다시 시작했으며 하이투자증권은 이달 신규 서비스에 나섰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투자자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CFD 서비스를 오픈하게 됐다”며 “강화된 투자자 보호조치로 고객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에 CFD 서비스 제공한 NH·키움·DB·하나·KB·삼성·한투·신한 등 8곳의 증권사는 재개 시기를 두고 눈치를 보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CFD 관련 규정 개정으로 진입 장벽이 높아진 데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CFD 시장

이 위축되고 있으나 재개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조만간 CFD서비스 재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액 자산가들의 절세 수단으로 이용해 온 CFD 서비스를 중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CFD는 국내의 주식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11%만 적용된다.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해 주식을 매각하는 큰손들이 CFD로 우회할 가능성이 높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CFD 규모가 적었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지 얼마 안 된 업체들은 서비스 포기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올해 안에 재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CFD를 이용했던 고객들이 다른 증권사로 옮기거나 신규 고객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전국 아파트 신고 거래량 4개월 연속 증가

신고가 거래비중, 3개월째 늘어

전국 아파트 신고가 거래량이 4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10건 중 1건이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신고가 거래비중은 3개월 연속 늘었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신고가 거래량은 1505건으로, 전월(1315건)에 비해 14.4%(190건) 늘었다. 지난 5월(1152건)을 시작으로 신고가 거래량은 4개월 연속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고가 거래의 비중은 4.36%에서 4.30%로 0.

06%포인트(p) 줄어 지속되던 상승세가 꺾였다. 신저가 거래량은 434건으로, 전월(445건)에 비해 2.5%(11건) 줄면서 3개월 연속 하락했다. 8월 신저가 거래 비중은 1.24%로, 7월(1.43%) 대비 0.19%p 줄어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신고가 거래는 지난달 349건으로 전월(357건)에 비해 2.2%(8건) 줄었다. 같은 기간 신고가 거래비중은 9.93%에서 10%로 0.07%p 높아졌다. 3개월 연속 증가한 신고가 거래비중은 지난해 10월(14.31%) 이후 10개월 만에 10% 이상을 기록했다. 신저가 거래 비중은 0.89%로, 2021년 9



서울 시내 아파트.

/뉴시스

월(0.97%) 이후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1% 밑으로 떨어졌다.

서울 외 지역 가운데 지난달 신고가 비중이 10%를 넘어서 지역은 제주가 18.18%로 유일했다. 서울과 제주, 강원 외 지역의 신고가 비중은 전부 5% 이하로 나타났다.

/김대환 기자 kdh@

투자자에탁금 이용료율 산정주기 개선

금리 변동 감안해 분기 1회 이상으로

증권사의 투자자에탁금 이용료율 산정방식이 개선된다. 직·간접비 및 비용 배분방식이 명확해짐에 따라 투자자는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된 이용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3월부터 운영된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자에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제정·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예탁금 이용료는 투자자가 계좌에 예치한 현금성 자산에 증권사가 지급하는 이자를 말한다. 이자율은 각 증권사들이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해 지급한다. 증권사 등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예탁금 이용료 산정 적정성에 대해서는 국회 및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

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이용료율 관련 직·간접비 구분 및 비용 배분방식이 명확해진다. 이와 함께 직접비는 비용에 전액 배분되고 간접비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안분해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간 증권사별로 구분기준이 다르거나 비용 배분에 차이가 있었다.

증권사별로 달랐던 이용료율 산정주기는 분기 1회 이상으로 개선된다. 시장금리 변동 등을 감안해 주기적으로 이용료율을 재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이용료율 산정 시 내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내부통제절차가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이용료율을 예탁금 종류·금액·기간별로 공시해 증권사마다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자자 선택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원관희기자



MONTES ALPHA

A TOUCH OF GRACE

나의 첫 와인 몬테스 알파

NARA
CELLAR

※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시장 규제 개선 ETF·선물 출시 등 개방화 나서

환경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위탁거래 도입 등 단계적 확대
이월 제한 판매량 1배→3배
상쇄배출권 전환 의무기한 완화

온실가스배출권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던 규제가 개선된다. 소수 기업만 참여하던 배출권 거래 시장이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개방적 시장으로 바뀐다.

환경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그간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 시장은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은 높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 또 “특히 최근에는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톤당 7020원)에 도달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했다”며 “배출권 거래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 상품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배출권을 증권사를 통해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위탁거래를 도입하고, 금융기관·개인 등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배출권 가격과 연동된 금융상품(ETN: 상장지수증권, ETF: 상장지수펀드) 등의 출시로 투자를 유도하고, 위험 관리를 위한 선물시장도 개설하게 된다. 환경부는 “유럽연합 등 해외 배출권 가격과 연동된 금융상품은 이미 국내에 출시되어 거래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장 본연의 기능을 왜곡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운을 저해하던 배출권 이월 제한과 상쇄배출권의 전환 의무기한은 합리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배출권이 남은 기업의 이월 물량을 당초 판매량의 1배에서 3배로 완화한다. 또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도 부족량보다 더 매수하여 이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온실가스 감축도 규제보다는 시장 원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는 온실가스를 줄인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출권 시장을 만들어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며 “기후분야 산업 육성의 계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정부·금융사, 퇴직연금 인지도 제고 나서

홍보·퇴직연금 돌려주기·가입 독려

정부와 퇴직연금 관련 유관기관, 금융회사(은행·보험·증권업 등) 20곳이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석자들은 이른바 ‘IR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RP는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협력해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Introduce의 첫 글자를 딴 I프로젝트는 ‘국민들에게 퇴직연금 알리기’이

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 금융회사가 함께 퇴직연금 홍보 콘텐츠 및 공익 광고 등을 제작해 대국민 인지도 제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달부터 12월까지 TV광고와 캠페인송,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

R(Return) 프로젝트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돌려주기’이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폐업 등으로 근로자들이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1250억원 규모, 고용부 추산)을 돌려주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P(Promote)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에 퇴직연금 가입 독려하기’이다. 2021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4.0%인 반면 30~299인 사업장은 78.1%, 300인 이상 사업장은 91.4%로 중소기업의 가입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퇴직연금이 활성화되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재테크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후이고 연금이야말로 오랜 시간 검증된 탄탄한 노후수단”이라며 “연금준비는 절대로 지체되거나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국내산 밤꿀, 선천면역·면역세포 4배 이상 증가

농촌진흥청-한의학연구소
항바이러스 효과 밝혀

국내산 밤꿀이 인체의 선천면역 인자와 면역세포를 4배 이상 증가시키는 등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은한국한의학연구원(최장기 박사 연구팀)과 국내산 밤꿀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연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밤꿀은 6월 중순에 생산되는 벌꿀로 진한 갈색을 띠며 강한 향과 약간의 쓴 맛이 특징이다. 예부터 피로 해소에 좋고 항균 효과가 뛰어나며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전해져 민간에서 많이 이용됐다.

우선, 면역세포를 이용한 실험 결과, 밤꿀이 인플루엔자 에이(A) 바이러스 감염을 62.2%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밤꿀을 먹이지 않고 바이러스에 감염시킨 쥐는 감염 후 6일 만에 모두 죽었으나 2주간 매일 국내산 밤꿀(600mg/kg)을 먹인 쥐는 60%가 생존



밤꿀.

/농진청

했다. 인플루엔자A는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사람에게 발병하는 인플루엔자 중 가장 흔한 유형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일반적으로 체중이 감소하게 되는데, 밤꿀 처리군의 경우 무처리군보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체중 감소도 17.3% 완화됐다.

또 밤꿀을 먹인 쥐의 혈청과 면역세포 생성조직인 비장에서 각각 ‘인터페론 베타’ (IFN-β, 선천면역 관련 단백질)의 발현과 ‘NK세포’ (자연살해세포, 선천면역을 담당하는 혈액 속 백혈

구의 일종)의 활성을 평가한 결과, 인터페론 베타는 4.3배, NK세포 활성은 4.6배 증가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바이러스 단백질이 발현되고 폐 조직에서 염증반응이 일어나 폐 무게가 늘어난다. 그러나 쥐에 2주간 밤꿀을 먹인 후 바이러스에 감염시킨 결과, 정상 쥐와 비슷하게 폐 무게가 감소했고 폐 조직의 염증 수치도 정상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밤꿀이 선천면역 인자인 인터페론 베타의 발현과 면역세포인 NK세포의 활성을 높여 기존의 면역력을 높여줌으로써 바이러스에 의한 염증반응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농진청은 특히 밤꿀이 선천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밤꿀 속 키누렌산(Kynurenine acid) 성분배 의한 것임을 밝혔다. 키누렌산은 밤꿀 1kg 당 1168mg이 들어있는데, 이는 매우 높은 함량이다. 벌꿀 생산량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아까시꿀을 포함해 다른 꿀에선 키누렌산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휴대용 빔프로젝터 성능 제각각 제품 간 밝기 최대 2.6배 차이

소비자원, 주요 브랜드 7종 비교
밝기, 샤오미 제품 388안시루멘
프로젝터매니아 등 표시값 미달
삼성전자, 음질·배터리 시간 우수

크기와 무게를 줄여 휴대성을 강조한 휴대용 빔프로젝터의 밝기와 음향, 배터리 사용시간 등 주요 성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선호도가 높은 주요 브랜드 휴대용 빔프로젝터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시험평가 대상 제품은 벤큐(모델명 GS50), 뷰소닉(M2e), 삼성전자(SP-L SBP3LAXKR), 샤오미(M055MGN), LG전자(PF50KA), 제우스(Zeus A 1000N), 프로젝터매니아(PJM-MINI 9) 7종이다.

시험평가 결과, 명암비·색정확성·색재현성·밝기균일성 시험결과를 종합한 영상품질 평가에서는 벤큐·삼성전자·샤오미·LG전자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제품도 양호한 수준이었다.

밝기는 제품 간 최대 2.6배 차이가 났고, 표시값에 미달하는 제품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샤오미 제품이 388안시루멘으로 가장 밝았고, 프로젝터매니아 제품은 152안시루멘으로 가장 어두웠다. LG전자·제우스·프로젝터매니아 3개 제품은 밝기 실측값이 제품 표시값 대비 약 3.2배~6.5배 미달했고, 뷰소닉·삼성전자 2개 제품은 국제기준 단위인 안시루멘으로 밝기를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음을 왜곡없이 재생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음향품질 시험평가에서는 벤큐·삼성전자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뷰소닉·샤오미 2개 제품은 ‘양호’, LG전자·제우스·프로젝터매니아 3개 제품은 ‘보통’ 수준 평가를 받아 제품 간 성능 차이가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비자선호도가 높은 휴대용 빔프로젝터 7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영상품질과 음향품질·밝기·배터리 사용시간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외부 전원 공급 없이 배터리를 연결해 사용가능한 시간은 삼성전자 제품이 3시간3분으로 가장 길었다. 벤큐·LG전자·제우스·프로젝터매니아 4개 제품은 기본모드 작동 조건에서 실측 사용시간(1시간30분~1시간50분)과 제조사 표시기준인 저전력모드 사용시간(2시간30분~3시간) 간 차이가 컸다. 샤오미 제품은 배터리 연결 시 간헐적 꺼짐 현상이 발생해 사용시간 측정이 불가능했다..

소비자원은 “사용 용도와 사용 공간을 고려해 적절한 밝기, 화면 크기 대비 투사거리, 배터리 사용시간 등을 갖춘 제품을 선택하는게 좋다”며 “야외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배터리 사용시간이 긴 제품을 선택해야하고, 영화 한 편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충분한 밝기로 최소 2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연구기관 9곳, 온실가스 관측연구 협력 강화

환경과학원, 기관 5곳과 신규 협약

국립환경과학원이 오는 21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8개 연구기관과 온실가스 관측분야 연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환경과학원은 지난 2021년 7월 국립산림과학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 국립생태원, 충남 보건환경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기관 5곳이 신규로 참여한다.

총 9개 연구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관측 기술과 부문별·지역별 관측 결과의 공동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과학기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관측 연구체계를 강화한다.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관측(모니

터링) 지점 운영 및 강화 △측정자료 신뢰성 향상을 위한 공동연구 △관련 연구성과 공유 및 활용을 위한 학술토론회(세미나·워크숍) 공동 개최 등이다.

환경과학원은 이번 협약으로 공동연구 분야를 기존 도심지역 배출원 특성 연구에서 전국 온실가스 특성 연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원·흡수원 특성 연구와 온실가스 관측 방법론 개발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와 지자체의 과학기반 탄소중립 추진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과학기반의 탄소중립 정책지원을 위해 온실가스관측망 구축,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온실가스 동위원소 분석 및 활용 체계 구축 등 온실가스 관측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신세계, 박주형 체제로... 대표이사 40% 교체, 젊은인재 배치

2024 그룹 정기 임원인사

박주형, 신세계·센트럴시티 겸직
이마트 대표이사에 한채양 내정
신세계푸드·L&B 대표에 송현석



신세계의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된 박주형 신세계센트럴시티 대표. 박 대표는 신세계와 신세계센트럴시티 대표를 겸직하게 된다.

/신세계그룹

신세계그룹이 변화와 쇄신, 시너지 강화, 성과총력체제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회사의 경쟁력 전반을 재정비함과 동시에, 경영환경을 정면돌파하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실행력 강한 조직 진용을 새롭게 구축했다.

신세계그룹은 2024년 정기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대표이사의 약 40%가 교체되며, 기존 틀을 깨는 새로운 조직운영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우수한 젊은 인재들을 과감히 중용·배치하여 새로운 도약 및 미래 경쟁력 강화를 강력하게 추

진한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인사에서 신세계 대표이사로 박주형 신세계센트럴시티 대표를 내정했다. 박주형 대표는 신세계와 신세계센트럴시티 대표를 겸직하게 된다.

이마트 대표이사에는 한채양 조선희 텔앤리조트 대표를 내정했다.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 등 오프라인 유통 사업군은 'One(원) 대표체제'로 전환돼 한채양 대표가 이들 사업군을 총괄하게 된다.

신세계푸드와 신세계L&B는 신세계푸드 대표인 송현석 대표가 겸직해 시너지를 확대하게 된다. 또, 신세계프라퍼티와 조선희텔앤리조트는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가 겸직하며 신세계라이브쇼핑 대표에는 이석구 신세계신성장추진위 대표를 내정했다.

이밖에 마인드마크 대표에는 콘텐츠 비즈니스 전문가인 김현우 대표를 외부 영입해 대표로 내정했으며 더블유 컨설팅코리아 대표에는 이주철 지마켓 전략사업본부장을 내정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대표이사 운영구조도 도입한다.

신세계그룹은 리테일 통합 클러스터(Cluster)를 신설하고, 산하에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 신세계프라퍼티, 쓱닷컴(SSG.com), 지마켓을 편제시켜 보다 더 강력한 시너지와 실행력, 신성과창출을 도모한다.

또한 예하조직 및 본부장 운영에 있어서도 통합본부장 체제 도입, 시너지를 위한 하이브리드 조직체제, 업무영역별 과감한 세대교체를 단행하는 등 전반적으로 기존 전통적 조직운영 방식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변화를 취했다.

신세계그룹 측은 이번 인사에 대해 "조직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쇄신·강화하고, 새로운 성과창출 및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과감한 혁신 인사를 단행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성과능력주의 인사를 통해 그룹의 미래 준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CJ더마켓

추석기획전 '더프페' 진행

CJ제일제당은 공식몰 CJ더마켓에서 추석맞이 기획전 '더마켓 프레스타(이하 더프페)'를 이달 24일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더프페'는 매달 20일부터 일주일간 CJ더마켓에 판매 중인 800여 가지 상온과 냉장(신선식품) 인기 제품에 대해 최소 40% 이상 할인하는 대규모 프로모션이다.

이번 '더프페'에서는 명절상차림을 준비하는 소비자를 위해 이들 앞당겨 시작했으며, 하나만 사도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위메프 '추석 기획전'

자급제폰 매출 198% ↑

위메프가 오는 25일까지 '2023 추석 기획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카테고리 상품의 판매가 증가했다.

위메프는 '2023 추석 기획전'에서 보급형 스마트폰이 거래액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위메프에 따르면 기획전 오픈 20일간(8월28일~9월16일) '자급제폰' 매출은 198% 증가했다. 아울러 심박수 등 실시간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 카테고리(164%)도 인기를 끌며 '효도가전'이 주목받고 있다.

추석선물칸과 카테고리별 거래액 비중도 디지털·가전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생활·주방(20%), 식품·건강(19%) 등이 순서대로 뒤를 이었다.

/이청하 기자

택배배송 매출 70% 급성장 홈플러스, 지원정책 통했다

셀러 상품 고객에 택배배송 서비스
'수수료 0%' 프로모션 등 혜택제공
해당기간 입점사업자 160% 증가

홈플러스가 마트직송, 즉시배송에 이어 '택배배송'까지 서비스를 확장해 종합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나아가고 있다. 홈플러스는 온라인 '택배배송' 서비스 올해 7~8월 매출이 전년 대비 약 70%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온라인 '택배배송' 서비스는 9월 들어서도 지난 10일까지의 매출이 전년 대비 41% 신장해 상승세에 있다.

대형마트를 기반으로 한 '마트직송'은 고객이 원할 때 받아보는 맞춤배송이다. 홈플러스는 '1시간 즉시배송'은 익스프레스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택배배송'은 각각의 판매자(셀러)들이 입점해 고객 주문 상품을 택배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홈플러스는 택배배송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투자의 일환으로 '수수료 0%' 프로모션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바 있다. 해당 프로모션을 통해 온라인몰에 신규 입점을 원하는 사업자들의 원활한 초기 정착을 위해 수수료 면제와 할인혜택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새롭게 입점한 사업자 수는 160% 증가했다. 또한 입점 셀러 판매 활동을 돕기 위해 택배배송 전용 중복 쿠폰비를 지원하고, 택배배송 전용관 탭을 온라인 홈페이지 전면에 내세웠다.

이 외에도 홈플러스는 ▲오픈런 데이 프로모션 ▲산지직송 전문관 ▲리퍼 기획전 등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상생의 가치를 높이고 실천하기 위해 '시니어마켓'을 비롯해 사회적경제기업 전문관도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시니어마켓'에서 택배배송 최단기간 전 품목 완판 기록을 세우며 지역사회 및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이청하 기자



지난 19일 진행된 '2023 오비맥주 스타트업 데모데이(Demo Day)'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비맥주

오비맥주, 2023 스타트업 밋업 개최

17개사 아이디어 발표·청취, 네트워킹
상위 5곳 우선선발, 시범사업화 실시

오비맥주가 국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2023 스타트업 밋업(Startup Meet-Up)'을 개최했다.

오비맥주는 지난 19일 코엑스 3층 컨벤션홀에서 구자범 수석부사장, 김석환 부사장 등 오비맥주 임원진이 심사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스타트업 17개사의 아이디어 발표를 청취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창업허브와 공동 주최한 이번 '스타트업 밋업'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스타트업과 동반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이어 온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2023 스타트업 밋업'의 발표 주제는 ▲친환경 기술 및 ESG ▲신사업 개발 ▲친환경 신소재 ▲포장재 혁신 ▲부산물 업사이클링 ▲물류 자동화 및 업무 효율화 ▲AI 테크 솔루션 등이다.

이날 참여한 스타트업 중 심사점수 상위 약 5개 업체는 '우선 선발' 스타트업으로 뽑힐 예정이며 이후 6~9개월간의 PoC(시범사업화) 기간을 거쳐 내년도 데모데이에서 최종 우승을 가리게 된다.

최종 선발된 기업에는 우승상금과

오비맥주의 투자 및 협업의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시장 출시 전 시제품의 사전 검증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과 서울산업진흥원의 사업화(PoC) 지원금, 글로벌 진출 지원금, ESG 컨설팅, PR지원 등 맞춤형 후속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앞서 18일, 오비맥주는 작년도 우선선발 기업을 중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2023 오비맥주 스타트업 데모데이'를 진행했다. 오비맥주의 부문별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작년 스타트업 밋업에서 선정된 테라블록·컷더트레쉬·위밋모빌리티 등의 업체가 그간의 사업화 진행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 선발업체로는 도매사 차량 배치 최적화 솔루션을 제시한 스타트업 위밋모빌리티가 선정됐다. 오비맥주는 위밋모빌리티와 앞으로의 사업 지속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사업지원금 100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오비맥주는 스타트업 밋업을 통해 푸드 업사이클 전문기업 리하베스트와 그린바이오 벤처기업 라피끄 등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상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오비맥주는 이들 스타트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속적인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지난 19일 SPC그룹 사옥에서 SPC삼립 정기성 상무(오른쪽)와 KRI한국기록원 김덕은 원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PC그룹

SPC삼립 '정통 크림빵'

단일 브랜드 최다판매 KRI기록원서 공식인증

SPC삼립은 '정통 크림빵'이 10년간 가장 많이 팔린 '단일 브랜드 최다 판매 크림빵(리테일 부문, 누적)'으로 KRI 한국기록원 공식 인증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정통 크림빵은 1964년 국내 제빵업계 최초의 비닐 포장 기술을 도입한 제품으로 자잘한 구멍이 뚫린 빵 속에 입안에서 살살 녹는 부드러운 크림을 넣은 제품으로 삼립 대표 스테디셀러다.

이번 인증은 크림빵 부문 단일 브랜드 최다 판매 기록으로 10년간(2013년 3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약 3억 2000만 개 판매를 달성했다. 10년간 판매된 '정통 크림빵'을 길이로 환산하면 약 3만 7042km로 에베레스트(8848m) 산을 2093회 왕복할 수 있는 정도다.

/신원선 기자

'립파이 초코' 소비자 홍보대사 모집

롯데웰푸드, 내달 15일까지 접수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가 '립파이 초코' 소비자 홍보대사를 모집한다.

립파이 초코는 출시 후 4개월간 약 200만갑이 판매되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티타임과 함께하는 디저트로 자리잡고 있다. 롯데웰푸드는 립파이 초코의 즐거운 경험을 폭넓게 공유하기 위해 소비자 홍보대사 'Dear. Me 앰배서더' 프로젝트를 준비했다고 20일 밝혔다.

'Dear. Me 앰배서더'는 총 1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은 오는 10월 15일까지 립파이 공식 인스타그램 SNS 채널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 발표는

10월 18일 예정이다.

선정된 참가자는 립파이 초코와 함께하는 나만의 휴식시간을 자신의 SNS 채널에 공유하는 미션을 수행한다. 앰배서더에게는 나만의 온전한 휴식시간을 립파이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Dear. Me 키트'를 제공한다. 키트는 립파이 초코를 곁들인 티타임을 즐길 수 있도록 어울리는 고급 홍차와 티팟(차주전자), 찻잔, 코스터까지 함께 구성되어 있다.

/신원선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아모레퍼시픽 “70여년 걸어온 향기의 여정, 체험해보세요”

북촌 조향사의 집

1960년대 조향 오르간 전시
향 원료 식물로 가득한 정원
조향 클래스·향 블렌딩 체험도

지난 1970년 연구소에 향료 연구 조 직을 신설한 아모레퍼시픽이 70여 년 동안 향(香)을 연구해 온 과정을 전시 한다.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15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서울 종로 북촌에서 ‘북촌 조향사의 집’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북촌 조향사의 집’ 전시는 1960년대에 지어진 2층 양옥집을 개조해 60~70년 대의 연구 공간을 재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의 역사성과 진정성을 효 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옛날 양옥집을 활용해 기획하게 됐다”며 “1960년대에 실제로 썼던 조향 오르간도 그대로 가 지고 왔다”고 말했다.

조향 오르간을 중심으로 1층 거실은 과일, 음악, 책 등 조향사들이 영감을 얻는 요소들로 꾸며졌다. 이와 함께 1층



아모레퍼시픽이 ‘북촌 조향사의 집’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거실은 경기도 용인의 아모레퍼시픽 기 술연구원을 옮겨 놓은 공간으로 이어진 다. 아모레퍼시픽이 화장품을 비롯한 제품들을 개발하는 과정은 ‘조향에서 시작한다’는 의미가 담긴 인테리이다.

조향사들은 향에 비중을 두고 원료를 연구하고, 그 향은 아모레퍼시픽의 브 랜드 제품에서 다양하게 활용된다. 아 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원료를 연구할 때 주로 원료의 성분과 기능을 연구하 지만 향이라는 직관적인 요소도 중요하

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이 연구하는 식물 원료 들은 ‘북촌 조향사의 집’ 정원에서 만나 볼 수 있다. 경기도 오산에 있는 아모레 퍼시픽 원료식물원을 축소시켜 높은 정 원으로, 향 원료 식물이 가득하다.

아모레퍼시픽은 ‘북촌 조향사의 집’ 에서 향에 관한 원데이 클래스도 예약 제로 운영한다. 이에 ▲조향사의 맞춤 컨설팅을 통해 향수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조향 클래스’ ▲향조와 원료에 관

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올팩션(Olf action) 클래스’ ▲향이 심신에 주는 영 향을 이해하고 직접 체험해보는 ‘향 테 라피 클래스’가 해당된다.

특히 조향 클래스는 예약이 빠르게 마감되고 있다.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향 블렌딩 체험도 있다. 원하는 향 을 오일이나 스프레이 제품으로 만들어 소장할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 는 “방문객이 관람하는 동안 전시장 곳

곳에서 맡았던 향을 굿즈로 제작해 공 간을 향으로 기억하는 것”이라며 “체험 료는 7000원이며 소요 시간은 5분 정도 로 방문객들의 참여가 활발하다”고 말 했다.

이번 전시를 공개하면서 처음 주말을 맞은 지난 16일에는 40여 명의 방문객 들이 블렌딩 체험을 했다.

2층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의 향 헤리 티지를 선보인다. 조향사 인터뷰 영상 을 따라 아카이브룸에 들어서면 각 시 대를 품었던 역대 향 제품들을 만나 볼 수 있다.

특히 ‘스와니 룸’에서는 아모레퍼시 픽이 지난 1984년에 출시해 ‘미스코리 아 향수’로 불렸던 스와니 향수 No.3의 향을 시향할 수 있다. 솔잎과 레몬, 허브 의 싱그러운 향과 장미, 목련, 자스민의 꽃향이 어우러진 가운데 부드러운 우디 오리엔탈 향이 더해졌다.

아울러 신상품 ‘퍼즐 우드’도 만나볼 수 있다. ‘퍼즐 우드’는 서울 성수에 위 치한 ‘아모레성수’에서만 체험할 수 있 었던 향을 가미한 제품들이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에이피알, 시그니처 퍼퓸 리뉴얼 출시

새로운 성장동력 ‘포맨트’ 신제품
성공한 사업가의 여유로움 표현
상큼하면서 부드럽고 깊은 향

지난 2017년 출시 이후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하며 에이피알의 또 다른 성 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포맨 트’가 신제품을 선보인다.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은 포 맨트(FORMENT)의 ‘시그니처 퍼퓸 코튼 썬세스’ (사진) 리뉴얼 버전을 출 시했다고 밝혔다.

퍼퓸·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인 포맨트



전작이 금색 병을 통해 단단하고 물 질적인 성공을 의미했다면, 이번 리뉴 얼에서는 향수가 넘실거리는 것이 보이 는 투명 병을 사용해 마치 성공한 사업 가가 여유롭게 마시는 한 잔의 위스키

가 선보이고 있는 ‘시 그니처 퍼퓸’ 라인에 는 코튼 허그, 코튼 키 스, 코튼 썬세스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코튼 썬세스가 성공의 품격 을 동적으로 형상화한 제품으로 재탄생했다.

같은 느낌을 표현했다.

가장 중요한 향의 경우 큰 틀에서는 전작을 그대로 계승했다. 포맨트에 따 르면 생 자몽과 베르가못, 만다린으로 구성된 톱 노트는 과즙의 상큼함과 베르 가못의 쌉쌀함이 후각을 강하게 자극 한다. 미들노트에서는 네롤리의 깔끔함 과 진저의 중후함을 느낄 수 있고 베이 스로 쓰인 샌달우드와 파출리, 코튼머 스크가 부드럽고 깊은 잔향을 만든다.

포맨트는 이번 리뉴얼 제품 출시와 함께 판매 채널 다변화에도 지속적으로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지난 19일 경기도 향남에 위치한 생산공장 향남캠퍼스에서 팜젠사이언스 대표와 관계자들이 ‘네 옴셀의 베트남 첫 수출 선적 개시’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팜젠사이언스

팜젠사이언스, ‘네옴셀’ 베트남 직접 수출

뷰티케어제품 2만 개 분량

팜젠사이언스가 ‘네옴셀(neomcell)’ 수출 선적을 계기로 주변 동남아시아 국 가로의 수출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팜젠사이언스는 자체 헬스케어 브랜 드 ‘네옴셀’의 베트남 첫 직접 수출을 위한 선적을 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베트남에 수출되는 제품은 네옴 셀의 뷰티케어제품 2만 개 분량이다. 아

울러 올해 안에 화장품 등 신규 품목을 수출 물량에 추가할 예정이다.

지난 6월 팜젠사이언스는 베트남 헬 스케어 전문유통업체인 메디케어(ME DICARE)와 수출 및 유통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메디케어는 네옴셀의 뷰티케어 제품을 베트남 전역의 약 6000개 병원 을 비롯해 약국, 드럭스토어, 에스테틱 샵 등 공급하게 됐다.

/이청하 기자

동아제약

미니막스 칼슘비타민D

사과맛으로 아이 입맛 겨냥

동아제약이 아이의 성장을 위한 다양 한 제품군으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신제품을 선보인다.

동아제약은 건강기능식품 ‘미니막스 칼슘비타민D 사과맛’을 출시했다고 20 일 밝혔다. 아이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 는 ‘미니막스 칼슘비타민D 포도맛’에 이 어 사과맛도 추가한 것이다. 설탕과 감 미료 대신 과일 농축액을 부원료로 사용 해 아이들이 선호하는 맛을 구현했다.

또한 이번 신제품은 뼈·치아 형성, 신경·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한 ‘칼슘’ 과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D’를 함유 했다.

현재 동아제약 미니막스 제품군에는 ‘칼슘비타민D’를 비롯해 ‘멜티비타민 미네랄’, ‘비타민D’, ‘비타민C’ ‘오메가 -3 DHA EPA’, ‘프로바이오틱스 아 연’ 등이 있다.

/이청하 기자

“제프티, 긴급사용승인 시 모더나 등 추월”

오상기 현대바이오사이언스 대표
“K-바이오의 BTS 될 수 있어”

오상기 현대바이오사이언스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KG타워에서 열린 ‘글 로벌 제약바이오 콘퍼런스’에 참석해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제프티’가 긴급 사용승인을 받게 되면 길리어드와 모더 나를 뛰어넘어 ‘K-바이오의 BTS’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상기 대표는 “순수 국내기 술력으로 만든 제프티가 ‘긴급사용승 인’을 받는다면 코로나19는 물론 여러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 치료제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일 현대바이오에 따르면 오상기 대 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지난 2021 년 씨애팜의 원천기술인 유무기 약물전 달체 기술을 이용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해 고통받는 전세계 환자들을 코로 나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

다. 이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2년 반 만에 성과를 거두며 세계 최초로 범용 항 바이러스제 ‘제프티’가 개발됐다.

현대바이오는 후발주자로 코로나 치 료제 개발에 참여해 초기 백신개발사 및 진단키트 등 각종 코로나 관련 사업 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정부나 외부 자금 지원 없이 국 산 코로나19 치료제 제프티 임상1상~2 상, 3상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오상기 대표는 “코로나19 치료를 포함한 범용 항바이러스제 개발 에 대한 확신이 있다”며 “일본에서 승승 장구하던 화장품 자회사 비타브리드재 판의 지분을 전량 매각한 자금을 투입 해 임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 대표는 “길리어드와 모더나 를 뛰어넘는 K바이오 기업을 양성하고 제약주권을 확립하려면 지금이라도 정 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절실하 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SK바사, 연구개발 시스템 디지털 전환

실험실 정보관리 시스템 국내 첫 도입

SK바이오사이언스가 연구개발(R&D) 시스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 T)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임상시험 검체 분석기관(GCLP)으로는 국내 처음으로 ‘실험실 정보관리 시스템(LIMS)’을 도 입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에 걸쳐 시스템 구축 및 컴퓨터 시스템 검증(CSV) 프로세스를 마친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일부터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임상시험에 LIM S를 적용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도입한 LIMS 는 세계적 소프트웨어 기업인 다쏘시스

템의 ‘바이오비아원 랩’ 플랫폼을 기반 으로 검체의 입고부터 분석, 보관, 반출 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관 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완전성·정 확성·일관성 등을 포괄하는 ‘데이터 완 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축적된 데이터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시 험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 대 시보도도 함께 구축했다. 이를 통해 임 상시험 면역원성 분석의 모든 과정과 결 과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결과 보고 서가 자동 작성돼 업무 효율성과 관리 체계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세경 기자 seilee@

풍성한 한가위가 되세요

유한양행은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꿈꾸는 세상,
모두가 건강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유한양행

“탄소중립 함께해요”… 벤츠, 환경교육 등 사회공헌 활발

어린이 교육 등 韓 사회 기여
11개 공식 딜러사 적극 참여

전 세계가 기후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환경 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친환경 행동에 대한 진정성과 습관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교육’인데,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자동차 기업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지난 2021년 9월 탄소중립 기후행동 실천 프로그램 ‘메르세데스-벤츠 그린플러스’를 출범한 후, 어린이 대상 환경 교육 ‘그린플러스 키즈’를 시행해오고 있다.

‘그린플러스키즈’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교육으로, 지난 2022년에 2만여 명, 올 2023년 한 해 1만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기후변화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가 지난해 진행한 ‘그린플러스키즈’ 참가자들의 모습.

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일상에서 탄소 중립 실천 방법을 교육했다.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위해 교육을 진행했고, 올해에는 고학년 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해 ▲탄소중립 마을을 만들어보는 스토리텔링 놀이 창작 키트 ▲심화 학습내용을 담은 활동 워크북 ▲업사이클링 플로깅 백 만들기 키트 ▲식물 심기 등 다양한 교육

키트와 체험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

이와함께 어린이들에게 탄소중립의 개념을 쉽게 전달하는 놀이학습 키트와 실천을 통해 탄소중립의 가치를 체득해보는 키트가 제공됐다. 각각의 키트는 친환경적 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포장은 가감히 줄여 폐기물 저감을 위한 노력까지 강조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는 아이들에게 환경을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 보전과 개선을 위한 지식 제공을 넘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의 국내 기여는 지난 2014년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출범 이후 집중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가 갖는 특화된 전문성과 핵심역량을 활용해 한국 사회 구성원에게 기여하고자 국내 11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와 함께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에코프로, 포항시로부터 감사패 받아

에코프로가 경상북도 포항시에 이차전지 산업 단지를 만드는 데 ‘앵커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에코프로는 포항 도시 변혁의 앵커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항시로부터 최근 감사패를 받았다고 20일 전했다. (왼쪽부터)이강덕 포항시 시장, 김병훈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대표,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이 감사패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에코프로



하이트진로, 지역 이웃에 명절 음식 나눠

하이트진로는 이번 한가위에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명절 음식을 후원한다고 20일 밝혔다. 20일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서 하이트진로 정세영 상무(왼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위수경 관장이 명절음식 후원 전달식에 참석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SPC-적십자, 취약계층 가족여행 지원

SPC는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취약 가정의 가족 여행을 지원하는 ‘제주 가족 여행’을 진행한다. 20일 밝혔다. 이번 ‘제주 가족 여행’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SPC해피케어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SPC



순천향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순천향대학교는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총괄 주관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2023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영호 순천향대 사무처장(오른쪽)이 교육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으로 부터 인증패와 인증서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향대

인사

◆방송통신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방 송정책기획과장 이현

부음

▲장동우씨 별세, 장지호(원격의료산업협회 회장)씨 부친상 = 19일, 대한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2일. 02-903-3231 ▲주병열(6·25 참전 유공자·향년 94)씨 별세, 주한근·주찬호·주영숙·주혜숙·주선미·주진씨 부친상, 이명구·정순식·최시역씨 장인상 = 20일, 충남 서산의료원 장례식장 국화 1호실, 발인 22일. 041-689-7540

중견기업계, 수산물 소비 활성화 앞장

중견련, 수산물 소비 활성화 캠페인
최진식 회장 “한가위 이후에도 지속”

중견기업계가 추석을 맞아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캠페인을 펼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19일 최진식 회장이 서울마포농수산물시장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20일 밝혔다.

간담회 이후 최 회장과 조 장관은 마포농수산물시장상인회 정양호 회장의 안내로 시장 내 수산물 점포를 방문해 수산물을 구매하면서 상인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최진식 회장은 “중견기업은 대한민



(앞줄 왼쪽부터)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9일 ‘추석맞이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 캠페인’에 동참한 중견련 임직원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견련

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촌 이웃들의 애로를 더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가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문홍성 사장, ‘1회용품 제로 챌린지’ 참여

〈두산〉

“환경 친화적 활동 장려해 나갈 것”

문홍성 두산 사장이 ‘1회용품 제로(Zero) 챌린지’에 참여한다.

20일 두산에 따르면 환경부가 주관하는 1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 화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시키는 범국민적 실천운동이다.

문홍성 사장은 “두산은 ESG에 기반한 경영으로 친환경 비즈니스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이번 기회에 임직원들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환경 친화적인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장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홍성 사장은 LG이노텍 정철동 사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KDB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을 지목했다.

/양성운 기자

기아, ‘광주 플래그십 스토어’ 개관

비수도권 최초 플래그십 스토어

기아가 비수도권 최초로 ‘기아 광주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관했다. 강서, 인천, 부천에 이어 네 번째로 문을 연 비수도권 최초의 플래그십 스토어다.

기아는 차량 관람부터 시승, 구매, 정비 서비스, 브랜드 체험까지 동시에 가능한 원스톱 복합 거점 ‘기아 광주 플래그십 스토어’를 공식 개관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아 광주 플래그십 스토어는 기존 서광주지점과 광주시청지점을 통합해



‘기아 광주 플래그십 스토어’ 외부 전경.

지상 2개 층의 대규모 고객경험 공간을 마련하고 확장된 미래 모빌리티 체험 요소와 차별화된 구매 및 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LG U+, ‘부모나라’ 출시… 육아정보 총망라

놀이구조대, 양육가이드 등 서비스

LG유플러스는 자녀 양육 고민을 해결해주는 부모 전용 서비스 ‘부모나라’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부모나라는 육아에 대한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 고객을 위해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 등 무료 놀이 장소 정보를 모은 ‘놀이구조

대’ ▲자녀-부모 성향 진단 기반 연령별 맞춤형 양육 가이드 ▲건강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게 할 대화법 ▲아이들과 연계 워크지와 자녀 성장 리포트 등 부모 니즈가 높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공영홈쇼핑, 협력사 대금 250억 선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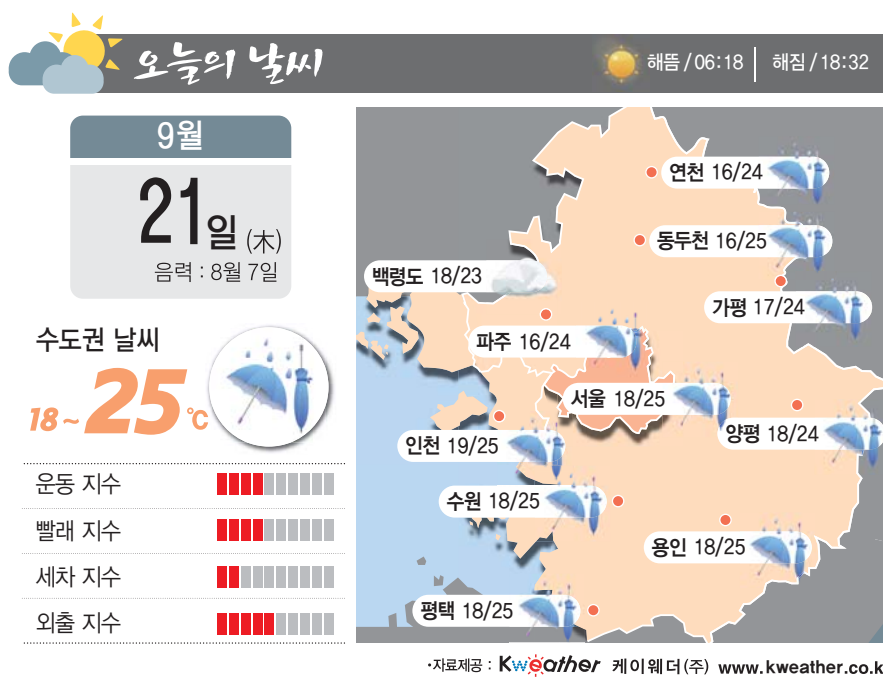
공영홈쇼핑이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약 250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선지급한다.

20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위해 기존 지급일인 10월4일에서 9일 앞당긴

이달 25일에 판매대금을 지급한다.

또 공영홈쇼핑의 유통망 상생결제 제도를 이용하는 협력사들은 21일부터 조기 현금화가 가능해 기존 정산일 대비 최대 13일 먼저 판매대금 수령이 가능하다.

/김승호 기자



행정의 벽



홍 경 안 의
시시일각

김구림의 개인전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4년 2월 12일까지 이어진다. 당대 최고의 실험미술가로 꼽히는 작가의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자리다. 1960년대 초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회화, 퍼포먼스, 전자예술, 비디오아트 등이 고루 출품됐다. 작품 수만 230여점에 달한다.

지난 7일엔 어느 한 장르로 귀속되지 않는 작가의 동시대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공연을 새롭게 구성해 주목을 받았다. 김구림이 직접 연출한 이 공연에는 영화와 무용, 음악, 연극을 잇는 4개 파트 70여명의 공연단이 함께 했다.

특히 마지막 파트인 연극 ‘모르는 사람들’에는 작가가 직접 출연해 동일 언어 속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들은 유함과 동시에 세월을 초월한 현역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 많은 이들의 갈채를 받았다.

하지만 구순을 바라보는 김구림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 전시는 아쉬울 수 있다.

비좁은 공간에 작품을 다닥다닥 늘어놓는 수준에 그친 전시 구성(그가 남긴 아방가르드 유산에 대한 탐구 따윈 찾을 수 없다)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그를 실망시킨 건 자신의 마지막 개인전이 될지도 모를 전시에 꼭 선보이고 싶었던 작품들을 구현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

실제 그는 개막식이 열린 지난 달 24일 “아방가르드(전위)한 것이 하나도 없어 미안하고 부끄럽다”며 행정 규제 등으로 자신의 주요 작업을 재현하지 못한 데 대한 분노와 섭섭함을 밝혔다.

김구림이 그토록 시도하길 원했던 작품은 광복천으로 건물을 감싸는 ‘현상에서 흔적으로’이다. 그러나 미술관의 반대에 부딪혔다. 등록문화재인 미술관 외벽에 작품을 설치하려면 타기관과의 협의 등이 필요한데 물리적으로 어렵다면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1900년대 초 서양 근대 모더니즘 양식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본관은 2008년 7월 등록된 문화재 375호이다. 등록문화재에 작품을 설치하기 위해선 문화재보호법과 그 밖의 관련 법규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아무래도 일반 건축물이 아니라 보니 여러 절차와 시간이 소요됨이 사

실이다.

‘현상에서 흔적으로’는 건축물에 어떤 손상도 주지 않는다. 천만 감는 것이지 나사 하나 사용할 일이 없다. 의지만 있다면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성을 고민해볼 수도 있었고, 내년 2월 마무리되는 8개월의 전시기간 동안 실현 가능하도록 대안을 찾는 등의 적극적 소통이 있었다면 작가의 섭섭함은 훨씬 덜했을 것이다.

행정의 벽은 높았다. 끝내 김구림의 ‘현상에서 흔적으로’는 재현되지 못했다. 작가가 원할 경우 오래된 건물의 벽을 허물거나 문화유적을 비롯한 미술관 건물의 주주가 드러나는 작품까지 허용하는 외국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 다르다. 행정이 예술을 앞선다. 균형도 아니다. 무조건 우위다.

미술관은 동시대성이 반영된 혼돈의 실험실로, 오브제로, 작가들의 자율성을 간섭하지 않는 탈규제의 공간이 돼야 하지만 갑갑한 행정은 미술관도 예외 없다.

건조한 행정은 미술의 진보를 가로막는 한국미술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다. 김구림의 불발된 작품이 의미하는 것처럼 관에 집어넣어야 할 대상이다.

/미술평론가

관광시대, 치안문제 해결이 최우선



김 지 수 첩
(정책사회부)

지난 여름 일본 홋카이도 시코쓰도야 국립공원에 위치한 조잔케이 온천마을로 빛축제제를 보러 갔다. 온천 일대 자연 지형에 프로젝트 매핑(건물 등에 영상을 비춰 연출하는 예술 기법)으로 구현한 라이팅 퍼포먼스를 감상했다. 바위엔 자연의 신비를 느끼게 하는 생명수가 흘렀고 산책로를 수놓은 형형색색의 물고기와 꽃들이 눈앞을 어지럽혔다.

‘서울에서도 이런 루미나리에(조명과 장식물을 활용한 빛의 축제) 페스티벌이 열린다면 관광객이 늘어 침체된 상권에 활기가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헛된 망상이었다. 문지마 칼부림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는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기자회견을 하려다 취소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흥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는 시기에 선불리 야간관광 부흥책을 내놓았다간 여론의 뭇매를 맞았을 터.

서울빛초롱 축제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축제 방문객의 지출액으로 인한 서울시의 순수 직·간접 생산파급효과는 263억9000만원, 소득파급효과는 51억3100만원, 부가가치파급효과는 103억4700만원에 이른다. ‘서울라이트 광화’, ‘광화문광장마켓’ 등 서울의 대표적인 야간 축제를 더하면 경제적 효과는 이를 훨씬 웃돈다. 치안 문제로 시는 수백~수천억원에 달하는 야간 관광 수익을 허공에 날릴 위기에 처했다. 여행지로서 서울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혔던 ‘안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지하철 2호선 을지로4가역으

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흥기 난동 오인 대피 소동이 일어났다. 검은색 후드를 뒤집어쓴 남성이 전동차에서 승객들을 밀치고 중앙 통로로 달려가는 모습을 본 시민들이 문지마 칼부림이 벌어진 줄 알고 도망치다가 뒤엎겨 넘어지면서 18명이 다쳤다. 서울시민들은 칼부림 사건을 겪은 뒤에는 문지마 범피드 트라우마가 생겼다.

야간관광 활성화 대책 발표 취소 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세빛섬에서 개최된 ‘서울관광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야간관광 수요 창출 등을 통해 ‘3·3·7·7 관광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문지마 칼부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 치안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3000만 관광객, 1인당 지출액 300만원, 체류기간 7일, 재방문율 70% 달성’이라는 목표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hjk1@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9월 21일 (음 8월 7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포장이 중요할 때도 있다. 48년생 머리보다 가슴으로 느껴라. 60년생 이기적인 마음으로 실수를 하게 된다. 72년생 말은 실체가 없어서 충알보다 빠르고 강력하니 가려서해야. 84년생 남의 흉보기전에 자신의 흉을 찾아보라.



37년생 자식지랑 말고 겸손을. 49년생 주변이 시끄러우니 남의 일에 끼여들지 마라. 61년생 욕심이 지나치면 일이 성사되기 어려우므로 조금은 양보. 73년생 조연도 사람을 봐가며 해야 한다. 85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38년생 불 처녀 마음처럼 설레는 하루. 50년생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62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내 잘못은 없으니 생각. 74년생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86년생 사업 확장하다간 풍비박산(風飛雹散).



39년생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 51년생 위장계통이 안 좋을 수 있으니 먹는 것에 주의. 63년생 길 떠나려는데 폭풍우가 치니 잠시 지체. 75년생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87년생 승진으로 십 년 묵은 체증이 해소되는 느낌.



40년생 한발 물러서면 그다지 손해는 아니니 결단이 필요. 52년생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 64년생 늘 말하던 것이 마침내 사실로 되어간다. 76년생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88년생 4시 이후 차량사고유의 할 것.



41년생 나비의 화려함이 애벌레의 시기를 거쳐서 나온다는 걸 명심. 53년생 비 온 뒤에 땅은 더 굳는다. 65년생 파란 하늘이 그림고 비일 언덕이 필요. 77년생 자신이 옳다고 여겨도 오늘은 침묵. 89년생 날새 탓만 하지 말고 외출을.



42년생 지나친 관심은 서로를 피곤하게 한다. 54년생 머리는 아프고 몸은 천근만근. 66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78년생 가슴이 답답하니 여행을 떠나 보는 것도 좋겠다. 90년생 머리 아프면 집안청소를 해보라.



43년생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격. 55년생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67년생 일의 능률을 올리려면 분위기를 바꿔라. 79년생 소득이 있으니 능력을 최대한 발휘. 91년생 한 가지 일에 매진하도록 계획을 세워라.



44년생 못 먹는 감 썰러보다 자신이 다칠 수. 56년생 멀리서 찾아온 친구가 즐거운 소식을 가져온다. 68년생 막상 급한 상황이 되면 지혜가 생겨난다. 80년생 지금까지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날. 92년생 가까운 곳에 자금 해결책이 있다.



45년생 급한 사람이 서둘러서 일을 시작하게 돼 있다. 57년생 아는 길도 물어서 가야 실수가 없는 날. 69년생 기대를 많이 한다면 노력도 그만큼. 81년생 문서운이 있으니 원숭이띠의 도움으로 성사. 93년생 미운사람 딱 하나 더 준다.



46년생 배우자 탓이 아니라 내 탓. 58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을이 죄불안식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70년생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82년생 일의 진척이 느려도 결과는 길선. 94년생 내가 놓은 덫에 내가 걸린다.



47년생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59년생 베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71년생 백지장도 맞들면 낀다니 협력을. 83년생 말로 듣기만 하는 것보다 눈으로 한 번 보는 게 확실. 95년생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면 도리어 손해를 입게 된다.

김상회의四季

큰 손 올드세대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은 어떤 시장에서 성공할 기회가 있을지가 궁금하다. 향후 유망한 시장을 예측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자영업자들과 상담하다 보면 고심하는 내용이 비슷하다. 수익이 생기고 돈이 물리는 캐시카우가 될 수 있고 지갑이 쉽게 열리는 소비층은 어디일까 하는 것이다. 현재의 생존이 걸려있고 미래가 달려 있으니 당연히 고심이 크다. 필자는 앞으로 올드세대가 유망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본다. 올드세대는 ‘영 올드’를 줄여서 부르는 젊게 사는 시니어라는 뜻의 신조어다.

올드세대의 나이는 대략 50~70세인데 베이비붐 세대가 해당한다. 옛날에는 나이가 들면 뒤로 물러나 쓸쓸히 늙어가는 이미지였지만 요즘은 크게 달라졌다. 올드세대는 우리나라 모든 세대 중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여유가 있는 편이다. 대학 교육을 본격적으로 받으면서 지적수준이 높아졌고 꾸준한 관리로 젊은 사람 못지않게 건강하다. 올드세대는 은퇴한 뒤에도 소비생활과 여가생활에 지출이 꾸준하다. 사회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전히 사회의 중심축이다. 자기를 위해 아낌없이 소비하는 올드세대는 큰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드세대를 겨냥한 창업은 무엇보다 맞춤형 서비스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점점 치아가 약해지고 음식준비가 귀찮아지는 나이가므로 먹기 편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배달해 주는 것이다. 소규모 창업 컨설팅도 괜찮아 보인다. 은퇴 후에 제2의 삶을 꿈꾸는 경제활동에 힘을 주는 서비스가 될 것이다. 디지털 기술과 IT문화를 어려워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이나 앱 사용을 도와주는 아이템도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된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실버산업 시장은 계속 커질 것이며 서비스 시장에서 큰손으로 떠오르는 올드세대를 주목해볼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27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380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6 | 10,000원

7		2					3	
						5	7	9
3			9				8	
		1	5	9				
			1	3	4			
				6	7	2		
	2				1			4
5	4	7						
	8					7		3

7								1
		2	7		3	5		
	5	1		2		9	3	
	2			3			7	
		7	9	6	4	3		
	4			5			9	
	1	8		4		7	6	
		5	6		1	8		
9								3

정답

8	2	1	9	7	9	6	8	1
8	9	1	6	2	8	1	7	9
7	9	6	1	8	1	8	2	9
9	1	2	1	9	8	7	8	6
1	6	8	7	6	1	9	9	2
9	7	8	2	6	9	1	1	8
2	8	7	9	1	6	9	1	8
6	1	9	8	1	2	8	9	7
1	8	9	8	9	7	2	6	1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물류, 불확실 수요·복잡한 서비스 해결 방법은 ‘디지털’”

기조강연

송상화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장

라스트마일 배송 혁신 등 대응 필요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 충족

송상화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장(사진)은 “물류 분야에서 불확실한 수요, 복잡한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해법)은 바로 ‘디지털’”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장은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주최한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에서 ‘글로벌 물류 산업 혁신 동향 및 미래 물류 모빌리티 전망’이란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빠르고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배송할 수 있는가(라스트마일 배송 혁신)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가(풀필먼트 서비스 혁신)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가(디지털 물류 혁신)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우선 전세계 기업들은 라스트마일 배송 혁신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상화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장이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주최한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미국 아마존은 가장 임대료가 비싼 뉴욕 한복판에 물류센터를 오픈했다. 이는 고객과의 거리를 최소화하고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스라엘 패브릭(Fabric)은 도심내 주차장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풀필먼트 센터 자동화 기술을 개발했다. ‘마이크로II 풀필먼트 센터’가 가능하게 됐다. 중국 알리바바는 더 빠른 배송을 위해 도심내 오프라인 유통 매장을 활용하고 있다. 고객이 QR코드로 제품을 주문하고 알리페이로 결제하면 가까

운 유통매장에서 제품을 픽업해 바로 배송하는 구조다. 3km이내면 30분내 배송이 가능하다.

미국의 타겟(Target)은 매장에서 온라인 주문의 90%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아마존은 또 특정지역의 프라임 고객들을 위해 ‘픽업 디스카운트’ 서비스를 시작했다. 고객이 25달러 이상 상품을 구매하면 무료 배송 대신 직접 픽업할 때 1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유럽의 TNT 익스프레스는 모바일 거점을 활용, 수요를 예측하고 컨테이

너 위치를 조정해 고객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국내 기업들도 라스트마일 배송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커머스 수요의 급격한 변동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GS편의점의 반값택배, 쿠팡이츠의 단건배달, 쿠팡 플렉스, 배민 묶음배달 등이 대표적이다.

송 원장은 “라스트마일 배송 분야에서 기상천외한 형태의 서비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효율성이 좋지 않아서 (갈수록) 더 많은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다. 고객들은 앞으로도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모델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지속가능성’”이라고 말했다.

상품 포장을 제거한 후 고객이 정한 요일에 통합 배송하거나 반품(Olive), 재사용 가능 용기를 활용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 및 비닐 낭비 최소화(Loop), 환경 우려로 제조사 박스를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고객에 배송(Amazon)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3자물류(3PL)는 보관센터→물류센터→풀필먼트 센터로 점점 진화하고 있다.

이커머스 풀필먼트는 ‘서비스만족 최대화’가 가장 큰 목표다.

송 원장은 “오늘날 풀필먼트 센터는 ‘종합서비스센터’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물류센터 역할은 스토리지(storage), 즉 보관센터 역할이었다. 이후의 물류센터는 상품을 빠르게 배송하는 ‘유통센터’로 바뀌었다. 흐름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고객(화주)이 원하는 배송 시기나 포장 방법 등 수요가 제각각이다. 그래서 풀필먼트는 전통적인 물류에서 벗어나 고객 서비스를 ‘어떻게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커머스 기업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된다. 대신 상품 관리, 수요 예측, 재고 관리 등은 모두 풀필먼트 서비스에 맡긴다.

송 원장은 “완벽한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전세계적으로도 손꼽는다. 수백수천개 관련기업이 있지만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더욱 늘어난다. 관건은 이런 요구에 대응하는 복잡한 서비스를 하나의 자원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기마민족 닮은 韓 물류, 그 기상 이어 받아야”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

엔데믹 시대, 물류업계 대변혁기 맞아
세계 곳곳서 글로벌 시장 선도 기대

최근 한민족의 기원지로 추정되는 중앙아시아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마르칸트에서는 1500년 전의 벽화가 발굴돼 전시돼 있는데 이 벽화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벽화 한 귀퉁이에 고구려 벽화에서나 볼 수 있는 조우관을 쓴 2명의 사신이 보입니다.

이들도 국제적인 ‘물류망’을 개척하려 온 것 아닌가 하고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실크로드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겁니다. 만주에서 시작해 낙양성, 장안, 둔황을 거쳐 서쪽 끝으로 이스탄불까지 1만5000킬로미터의 비단길을 통해 청동기, 제지, 종교, 문물 등이 전파됐죠. 인류문명이 상호 교류하면서 발전하게 됐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문명이 탄생하고 전파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물류, 로지스틱스도 고대



실크로드의 상호 교류의 정신을 바탕으로 깔고 있습니다. 경제적 교류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를 포함한 동서-남북-선후진국 간의 교류는 인류역사의 발전을 앞당기는 핵심적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 시대를 마감하고 엔데믹시대가 본격 도래된 지금, 물류업계는 글로벌 대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를 거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이 대세가 됐고 운송프로세스 최적화, 거미줄 물류망 확충, SCM 공급망 최적화, 효율적 재고관리 등 밀 빠진 독처럼 돈을 쏟아 부을 일이 끝이 없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무한경쟁의 시대 속에서 다시 한 번 실크로드를 호령하던 한민족의 정신을 떠올려봅시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빠른 시간에 물류 강국으로 부상한 경쟁력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한민족이 가진 ▲도전정신 ▲진취적 기상 ▲신속한 의사결정 ▲끈질긴 인내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근성과 치열한 경쟁의식은 광활한 황무지를 개척해온 기마민족과 닮았습니다. 고구려인의 기상이 떠오르는 대목이고 ‘물류인’이라면 응당 가져야 할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라시아대륙의 동쪽 끝, 보잘 것 없던 민족이 근 50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오른 비결은 무엇일까요.

수출로 일어난 나라인 만큼 이를 뒷받침한 물류산업의 경쟁력이 절대적이었을 겁니다.

말을 타고 사막 저 멀리, 초원 저 멀리, 광활한 미지의 세계를 개척한 기마민족 고구려인의 기상을 이어받아, 우리 물류산업도 엔데믹 시대에 세계 곳곳을 누비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쾌거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국가역량 모아 맞춤형 지원 나서야”

축사

김경만 국회의원

물류 산업 대한민국 경제 대동맥
양질의 일자리 확보 등 핵심산업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정상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돼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물류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대동맥이죠. 대한민국을 세계 6위의 교역 국가로 만든 원동력이자 미래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이끄는 핵심 산업입니다.

더욱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등장으로 기존 운송 관리 중심의 개념을 넘어 물류 혁신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IT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과 인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은 앞으로의 물류 산업에서 압도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 물류기업들은 지속적인 인수합병,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후발 기업들과의 격차를 더욱 벌려놓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정부와 국회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류산업과 연계돼 있는 산업발전을 위해 국가의 역량을 한 데 모으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물류산업 혁신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 경제를 지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 역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한민국 물류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버팀목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차현정 기자 hyeon@

버스타비 **YAP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엘런 머재우 “유가 상승 바람직하지 않아… 안정·하락 기대” /사진 뉴시스
▲美상무 “반도체법 가드레일 곧 마무리… 중에 한 톨도 안 돼”

▲中國가부주식, 美기후특사와 회담… “중·미 기후협력 중요”
▲中, 기준금리 1년물 LPR 3.45% 동… “금융완화 효과 확인”



▲러 쇼이구, 軍대표단 이끌고 이란 방문… “군사협력 논의”
▲日기시다, 유엔 연설서 북일 회담 의향 강조 /사진 뉴시스



신세계
박주형 체제로
젊은인재 배치
L1



Life

아모레퍼시픽
“70년 향기의 여정
체험해보세요”
L2



“물류현장 속 첨단기술 구축… ‘n커머스’에 대응”

강연

박 철 수 아워박스 대표

3PL 넘어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
모든 커머스 활용 가능 기술 만들 것

요즘 물류현장에는 사람이 적다. 그림에도 실수가 없고 더욱 꼼꼼해졌다. 다양한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판단과 계수, 결과 보고는 첨단 기술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대표가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진행한 ‘2023 물류&모빌리티 포럼’에서 아워박스를 예로 최근 물류현장에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가 강연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서 적용 중인 첨단 기술을 전했다. 아워 박스는 4PL(Fourth Party Logistics) 기업으로 최근 가장 주목 받는 물류 기업 중 하나다.

아워박스는 3PL의 형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거래기업의 업무 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인다. 과거 3PL에서는 1개의 주문에 대해 거래기업과 물류 담당사가 각기 역할을 나눴다. 물류기업은 상품을 피킹·패킹 후 출고와 배송, 송장 번호 회신만을 담당했다. 아직은 다소 생소한 4PL, 풀필먼트 서비스가 3자 물류와 다른 점은 모든 과정이 풀필먼트 센터 내에서 일어나고, 거래기업의 역할은 품목 입고만을 담당한다는 데 있다. 유한킴벌리, 신세계푸드, 오투기, 삼성물산 등 굴지의 대기업들과 수많은 개인, 중소기업을 거래사로 월 10만 건 이상 주문을 처리하는 아워박스의 비결은 인공지능(AI) 등 IT 첨단기술이다.

박 대표는 “우리가 파악하기로 1개의

기업 또는 판매자는 대략 20개 플랫폼에서 판매를 진행하는데 이는 실시간 주문을 모두 집계하고 처리할 수 있는 IT기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라며 “우리가 구축한 ‘오더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고객사의 자사물과 다양한 판매 채널에서 주문서를 실시간으로 당겨오고,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송장번호를 출력해 배송 단계로 인계한다”고 설명했다.

첨단 기술을 통한 풀필먼트 서비스는 업무량을 줄이는 데에서 더 나아가 고객사의 매출증대와 소비자의 만족에 이른다.

아워박스는 3D 비저닝(3D Visinimg)을 통해 기존 상자 단위로 이루어졌던 체적 기준을 바꿨다. 둥근 형태까지 인식해 이를 계산하고 포장 형태까지 추천하는데, 이러한 기술은 기업에 상품 보

관을 위한 CAPA를 높이고 불필요한 포장을 방지함으로써 탄소배출을 절감한다.

현재 고객사 중 한 곳인 동원은 아워 박스가 한 달에 약 35만 개에서 40만 개의 상자를 처리하고 있다. 모든 단계에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당일 출고율을 이전 대비 11~13% 증가시키자 동원 전체의 e커머스 소비자 불만 제보가 70% 줄었다.

박 대표는 “지금 현재는 e커머슴지만 앞으로 어떤 형태의 커머스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우리의 비즈니스를 엔 커머스(n commerce; 미지수 n) 서비스 기업으로 이름 붙였다”며 “풀필먼트는 고도의 IT 기술 현장이다. 어떤 커머스트든 가능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수소모빌리티 전환… 액화수소 공급망 구축해야”

강연

김 서 영 하이리움산업 대표

물류업계 탄소중립에 수소생태계 확대
안전성 위해 액화수소 유통망 필요

김서영 하이리움산업 대표는 물류업계가 탄소 중립을 추진하면서 수소 생태계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하게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공급망을 고기압 기화수소가 아닌 액화 수소 중심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대표는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김서영 하이리움산업 대표가 강연을 하고 있다.

(KRX)에서 주최한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에서 ‘물류 탄소중립과 수소 모빌리티’를 주제로 두번째 강연을 했다.

김 대표는 물류산업에서도 탄소 중립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설명하며 강

연을 시작했다.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에서 물류 산업 비중이 22%에 달한다며, 유럽을 비롯한 정부가 물류에도 탄소 배출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제조 업체들도 RE100을 위해 탄소 중립 물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물류 업계에서도 탄소중립을 재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까지 해운 탄소중립을 결의하는 ‘획기적 사건’이 일어났으며, 2050년에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배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때문에 물류업계가 수소모빌리티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역사적으로 에너지가 석탄과 석유, LNG 등 탄

소에서 벗어나며 발전해왔던 상황, 저장이 어려운 전기와 함께 수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수소모빌리티 전환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대표는 수소 트럭 가격이 5년 안에 내연기관보다 저렴해질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며, 조선 업계에서도 수소를 활용한 선박을 서둘러 개발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런 수소가 적도 10년 이내에 1kg당 1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특히 미국 보잉이 2035년 액화 수소 탱크를 장착한 민항기를 출시할 예정이라며, 추후 수소 항공기가 대중화되면 2060년에는 대형 공항에 하루에만 수소 700톤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수소 생태계 구축에서 뒤처져 있었지만,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경쟁

력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대자동차가 1990년대부터 개발을 시작해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를 상용화하고 수소 트럭으로 이어가는 상황, 올해 말부터는 하루에 액화수소 120톤을 만들며 전세계에서 2번째 생산국가로 올라선다며, 수소 충전소 등 공급망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안전한 수소 시대를 위해서는 유통망도 액화수소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에서는 1기압에서 액화질을 만들어도 운반 과정에서 고기압으로 변환하는 탓에 폭발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우려를 심어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김 대표는 앞으로 액화수소 생산량이 급증하는 만큼, 공급망에서도 액화수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재웅 기자 juk@

“복잡도 높은 라스트 마일, 빅데이터·AI 적용될 것”

강연

최 규 범 로지올 부대표

소비자보다 참여자가 중요한 생태계
인력효율화, 전기바이크 등 방안 모색

최규범 로지올 부대표는 “라스트 마일(Last mile)은 굉장히 복잡도가 높고 비용 역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구간이다. 인건비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이 앞으로 더 많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최규범 로지올 부대표가 강연을 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주최한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에서 ‘Lastmile, EV and ESG’란 주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숙련된 라이더(배달기사)와 AI배차가 대표적이다. AI배차는 교통법규를

완전히 준수하는 수준에서 배달 동선을 그린다. 그런데 배달기사는 시간 때문에 가끔은 신호를 무시하기도 한다. 도로나 운동장을 가로지르기도 한다. 스피드 경쟁에선 어떻게 모르겠지만 AI가 적용된 예다.

배달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사람’과 ‘비용’이다.

최 부대표는 “배달 플랫폼 회사 입장에서 라스트마일의 복잡도를 개선하면서 인력의 개입을 최소화해 결론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면서 “인력은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겠지만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달 산업은 소비자 개입이 상당히

제한적인 대표적 분야다.

‘생각대로’를 운영하고 있는 로지올은 ‘분리형 배달 플랫폼’(배달중개+배달중개) 영역에 속한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 잇츠 등은 ‘통합형 배달 플랫폼’(주문중개+배달중개)에 포함된다.

최 부대표는 “고객이 주문 플랫폼으로 음식을 시킬 때 묶음배달, 알뜰배달 등의 형태는 선택할 수 있지만 나는 이 배달을 어떤 업체에서 배달받겠다”를 선택할 순 없다. 배달영역은 이처럼 소비자보다 생태계 참여자들이나 배달 라이더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생태계가 작동하는 특수한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때문에 플랫폼 운영사들은 ‘참여자’가 가장 중요하다.

최 부대표는 “코로나19 이후 배달시장이 침체되고 생태계 참여자들의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생태계

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라고 전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음식 배달 산업 규모는 코로나19가 발발한 2019년 당시 약 9조7000억원에서 지난해엔 26조6000억원에 바짝 다가섰다. 하지만 올해는 같은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그래서 로지올이 찾은 답은 이륜전기차다. 로지올은 계열사인 닷스테이션을 통해 대만의 전기바이크 회사 ‘고고로’와 독점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최 부대표는 “전기바이크는 유지비용을 기존 바이크에 비해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다. 배달 시장 침체로 자영업자들은 수입이 감소했어도 비용이 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순수익을 유지하거나 더 나아질 수 있다. 생태계 참여자와 상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차현정 기자 bada@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복통 호수’ 김하성, 사흘 연속 선발 라인업 제외
▲배지환, 4타수 무안타 침묵…시즌 타율 0.236

/사진 뉴시스

▲오타니, 팔꿈치 수술… 내년 타자·2025년 투수 복귀 목표
▲최지만 볼넷·사구로 멀티출루…샌디에이고 뒤늦은 6연승



▲이강인 21일 합류 확정…드디어 ‘완전체’ 되는 황선홍호
▲문도업, KPGA ‘iM Bank 오픈’ 2연패 정조준

/사진 뉴시스

국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찾기
KBGoodJob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KB국민은행이 응원합니다



오늘의 취업준비를

내일의 출근준비로



KB굿잡 취업박람회 | KB국민은행이 주최하는 단일 규모 국내 최대 취업박람회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23회에 걸쳐 5천여 개의 우수기업과 117만 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약 3만 5천여 건의 일자리를 연결했습니다

2023 KB굿잡 부산 잡(JOB) 페스티벌

2023. 10. 18.(수) 부산 BEXCO 제1전시장

주최 부산광역시 KB국민은행 주관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KEF 부산경제자총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역본부 BUA 새부산벤처기업협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테크노파크 동부산경제진흥원 한국무역협회 KBIZ 중소기업중앙회

KITA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OSDAQ 코스닥협회 TIP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방전직교육원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대학교 취업관리지원단 후원 교육부 대한민국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KB금융공역재단

• 자세한 내용은 KB굿잡 홈페이지(<https://kbgoodjob.kbstar.com>)에서 확인하세요

KB 국민은행